

Title: 퇴직연금 제대로 굴리기, 디폴트옵션 A to Z

등록일: 2023.08.09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들긴 들었는데 제대로 운용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이 있어요. 디폴트옵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DC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 주목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퇴직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퇴직연금이 열심히 몸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한테 해당돼요.

디폴트옵션은 기존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계 없이 이행해야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기존에 펀드로 운용하고 있어도 미리 선정해야 해요.

테이블 제목 정보

확정기여형

(DC) 적립은 회사가 하되, 운용은 스스로 하는 유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적립도, 운용도 스스로 하는 유형

운용에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해도 되지만,

연금 관리를 자꾸 미루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①저위험, ②중위험, ③고위험】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에 따라,

디폴트옵션은 위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고위험은 기대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고,

저위험은 기대수익률도 리스크도

모두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디폴트옵션 '이렇게' 작동

디폴트옵션을 정했다고 해서 바로 운용되는 건 아니예요.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①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4주 후까지 운용 지시를 안 내리면,

② 금융사는 가입자한테

"이전에 골라 놓은 상품에

자동 투자하겠다"고 통지해요.

③ 가입자가 이 통지를 받고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④ 금융사는 2주를 더 기다리다가,

가입 당시 정한 '디폴트옵션'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투자할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를

미리 골라 두기만 하면,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디폴트옵션의 특징

#수익률 #운용

이런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바쁜 현대인한테 딱 어울리는 제도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연금 수익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①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요.

한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해두거나,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② 운용에 신경을 덜 써도 돼요.

퇴직연금에 가입은 했어도  
관리하는 게 부담되거나,  
잘 해낼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디폴트옵션에 맡겨두면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도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두지 않은  
퇴직연금 DC형, IRP 가입자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셋팅해주세요.  
[출처: KB증권 공식 블로그 더보기]

Title: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등록일: 2023.08.03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거리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에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아래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참고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

(이자,

배당)

(비과세, 분리과세, 퇴직금 등 제외)

연금소득

공적연금 50% 반영 (사적연금 제외)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

근로소득

근로소득 50% 반영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

주택 공시가격 X 60%

토지 공시지가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선박, 항공 시가표준액 X 100%

전세/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자동차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Title: 은퇴 후 생활비 350만원 만들기

등록일: 2023.08.01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은퇴 이후의 삶. 이를 은퇴 이전처럼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재무·비재무적 준비를 ‘은퇴설계’라고 한다.

한 달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50대

가장 A고객도 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자산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들고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50대 가장의 실전 은퇴 설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결과,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연금, 퇴직금을 합한 순자산은 10억 3천만원,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매월 210만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미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재취업을 통해 5년 정도 더 일한 후 60세 시점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매월 3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은퇴 설계를 위해, 은퇴 이후 필요한 지출 계획에 관해서도 상담을 이어갔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그리고 부부 여행자금 등에 대한 추가자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50대 가장 A씨를 알아보자

#### ① 자산 현황

테이블 제목 정보

부동산 서울 노원구 소재 24평 아파트

시세 6억원(대출 없음)

금융자산

(예·적금 등) 1억 4천만원

개인연금 개인형IRP 2,600만원

연금저축보험 3,400만원

퇴직금 세후 2억 3천만원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본인 65세부터 150만원

배우자 65세부터 60만원

#### ② 가족 관계 및 은퇴 계획

테이블 제목 정보

가족관계 본인 : 55세

배우자 : 52세

자녀 : 19세

은퇴계획 재취업 후 예상 은퇴 연령 : 60세

예상 월 생활비 : 350만원

예상 수명 : 본인 90세, 배우자 95세

#### ③ 미래 지출 계획

테이블 제목 정보

자녀 교육

결혼자금 5천만원(자녀 나이 31세)

취미생활

여행자금 매년 500만원(60세~65세)

300만원(66세~75세)

신차 구입 비용 3천만원(60세)

수령한 퇴직금은 내년 이후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상 은퇴 연령인 60세 기준으로 은퇴 준비자금을 계산했을 때,

은퇴 시점 예상 월 준비자금은 약 200만원으로 나왔다.

※ 개인형IRP, 연금저축보험 : 연금 수령 20년 가정

※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 연 2.5%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 연 3% 가정

월 준비자금 200만원은 A 고객에게 필요한 은퇴 생활비 월 350만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잘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빠른 유동성 확보가 어렵기에 월 생활비로 전용이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이후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대신 개인형IRP계좌를 활용한 퇴직금의 연금 수령, 목표 수익률과 은퇴시점 연기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드렸다.

은퇴 후 생활비 확보하는

3가지 솔루션은?

① 입출금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IRP계좌로 입금해 보자

개인형 IRP계좌를 통해 정기예금부터 펀드, ETF까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연금 수령도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인출방식으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중에 재취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수령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될 경우, 연금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어 생활비 외에 여러 지출 항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② 금융자산의 목표 수익률을 연 2.5%에서 3.5%로 올려보자

은퇴 이후 물가상승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연 3.5%로 설정했다.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감내 가능한 위험 범위(손실 범위) 내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저축은행 정기예금, 특판 이율보증형 상품, 디폴트옵션상품 등 활용) 및 전문가를 통한 주기적인 상담을 활용해 자금 운용에 전념하는 경우, 월 준비자금이 25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취업 소득 중 100만원을 개인형IRP 또는 ISA 등 절세형 상품에 추가 적립

하고, 보유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 수령 시

최종적으로 매월 330만원의 생활비가 확보된다.

③ 은퇴 시점을 60세에서 63세로 늦춰보자

여전히 목표로 하는 은퇴 생활비 대비 준비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퇴 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 고객이 은퇴 시점을 63세로 늦추고,

다른 조건들은 유지하는 경우 예상 준비자금이 355만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희망하는 소비 수준에 맞는 은퇴 생활을 63세부터 하거나, 은퇴 예상 시점을

60세에 맞추고 은퇴 이후 생활비를 330만원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설계할 때, 이것만은 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예상 시점과 은퇴자가 원하는 은퇴 생활비 설정이다.

대부분 은퇴 이후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줄여서 쓰기로 각오하지만, 실제로 은퇴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 생활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사전에 은퇴 설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은퇴자금이 준비되었는지 가능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이

은퇴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은퇴 설계를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KB골드라이프센터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은퇴 설계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은퇴 설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결국, 본인의 은퇴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은퇴 자금 운용 계획을 빠르게 실행할수록 안정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연금)상담 신청하러 가기

【은퇴설계 핵심 포인트】

①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물가상승 대비 소득 증가가 더딘 시기에는

→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고려해 보자.

②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운용손실을 최소화하자

→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자.

③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을 지속해서 관리하자

AI가 추천하는 나만의 맞춤상품 알아보기

④ 절세형 상품을 통해 세금을 아끼고, 퇴직 후 추가 비용(건강보험료 등) 발생을 최소화하자

나를 위한 절세상품과 절세한도 확인하기

⑤ 자본시장, 금융자산에 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자

→ 은퇴 이후 필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금융자산, 연금 자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금융시장 동향과 시장전망 알아보기

[출처: KB골드라이프 X]

고경환 KB국민은행 골드라이프 노원센터장

Title: 글로벌투자, 쉬운투자, 안전한투자 3가지 모두 필요할때.

등록일: 2023.07.27

최근 많은 금융 투자자가 급변하는 투자 환경과 확대된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투자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최근 40년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등했고, 미 연준은 이에 대응하려고 1년간 기준금리를 1.75%에서 5.5%로 크게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외교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과 종목 차별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2021년 말 4,766p로 마감한 미국의 S&P500지수는 2022년 10월에 3,639p까지

곤두박질쳤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손실 폭을 축소했고, 일본의 니케이225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많은 전문가가

연초에 긍정적으로 전망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미-중 외교 갈등의 부각과 더불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가격 차별화가 심할 때는 아무리 우수한 전문가라도 시장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자산관리에서 수익 추구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하는 만큼 분산투자를

기반으로 한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투자 경험 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업에 바쁜 투자자라면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특징과 장점

자산배분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 환경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이는 투자자산을 2가지 이상 섞으면 수익률은 평균화되지만, 리스크는 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분산투자 효과 때문이다.

이 경우, 서로 움직임이 다른 자산을 섞는다면 리스크 감소 효과는 더 커지는 만큼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자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안정적 수익 창출을 운용전략으로 삼는 투자상품이다.

다양한 자산군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 발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인다.

이런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인 자산운용 기관과 펀드 매니저를 통해 자산배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자산배분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단순한 분산투자 개념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경제학과 통계학 등에

고도의 지식을 갖춰야 하는 특정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런 장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경기와 물가 변동에 의해 상반된 흐름을 보일 때가 있다.

또 각 자산군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했으나 개중에는 몇십 년간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거나 파산 등으로 휴지 조각이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즉,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수많은 자산군 중 어떤 자산에 자금을 얼마씩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찾아내는

노하우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려면 해외투자가 필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우리가 잠들 시간에 장이 열리는 만큼 직접투자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나마 해외주식은 최근 직접투자를 대행하는 증권사가 늘어났지만, 해외채권이나 해외부동산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기에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소액으로도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자산배분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을 직접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주당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하는 주식이나 한 채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배분형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만든 목돈으로 투자하고, 개별 투자자는 내 지분만큼 성과를 나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시중에 출시된 공모 자산배분형 펀드를 활용하면 1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글로벌 자산배분을 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여러 명 고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좋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를

고르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를 대행하고 소액으로도 자산배분이 가능한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적거나

생업에 바쁜 일반 투자자에게 자산관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펀드 가입 전에 체크해둘 사항을 알아본다.

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기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도 운용 스타일이나 규칙상 투자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만약 주식 비중이 높다면 공격적 투자 성향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채권 비중이 높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 성향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상품의 위험 등급도 같이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 1~6등급까지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양한 투자자산을 운용해본 자산운용 기관에서 출시한 펀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대형 자산운용 기관이나 유명 외국계 자산운용 기관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KB국민은행은 2023년 하반기에도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을 감안해 KB, 미래에셋 등 대형 우량 자산운용 기관과 제휴해 총 3종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펀드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③ 펀드의 운용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펀드의 운용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장기 성과가 구간별로 고르게 양호한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펀드 운용역의 자산배분/종목 선택/사후관리 구조를 세밀하게 살핀 다음 현재

시장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부합하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 해당 유형의 펀드 중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분석해 주기적으로 추천하는 '추천상품 리스트'를 참고하고, 추천 사유를 확인해서 비교해보는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할 것이다.

■ 위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며 본 내용을 무단 배포 및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재혁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전문위원]

Title: 기초연금이 뭐예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3.07.18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얼마전 고객님의 안내문 하나를 가지고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하셨다. 안내문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OOO 님,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상담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고 간편하게 Q&A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자.

기초연금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주요 용어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가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참고】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여부 자가진단하러 가기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원)



Title: 국민연금 당겨 받을까? 미뤄 받을까?

등록일: 2023.06.29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무조건 당겨 받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한다.

모두 맞는 이야기도, 모두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부터 알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제도다. 이고,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최소 6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연금수령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금수령나이 선택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년이면 꽤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출생년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5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6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6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68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6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70세

노령연금 수령시기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첫째, 가입자의 소득이다.

노령연금을 본인의 연금수령나이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적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으로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이다.

즉,

월소득이 2,861,091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노령연금을 본인의 연금수령나이보다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 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수령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뭘까?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앞서 설명한 'A값'보다 많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감액기간은 연금 개시 후 5년간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기 선택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연금수령액의 차이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한다면 연금액은 30% 감액된다.  
반대로 연기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따라서 수급시기를 5년 미루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나게 된다.

KB골드라이프센터를 방문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생인 A씨는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3년 뒤에 퇴직할 생각이다. 노령연금을 당겨 받자니 연금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손해보는 느낌이고, 늦게 받자니 소득 크레바스(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가 걱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내결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A씨의 연금수령시기(65세 vs 60세)에 따른 누적연금액을 비교한 결과, 76세가 넘을 때부터 정상수령(65세) 누적연금액이 조기수령(60세) 누적연금액 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수령으로 연금을 신청했을 때, 약 11년이 지나면 조기수령보다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동안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연도별 누적연금액 비교]

연도 65세 연금수령  
(현재가치 A) 60세 연금수령  
(현재가치 B) 증감  
(B-A)

2031년	0원	10,187,380원	10,187,380원
2032년	0원	27,651,460원	27,651,460원
2033년	0원	45,115,540원	45,115,540원
2034년	0원	62,579,620원	62,579,620원
2035년	0원	80,043,700원	80,043,700원
2036년	16,514,480원	97,507,780원	80,993,300원
2037년	41,286,200원	114,971,860원	73,685,660원
2038년	66,057,920원	132,435,940원	66,378,020원
2039년	90,829,640원	149,900,020원	59,070,380원
2040년	115,601,360원	167,364,100원	51,762,740원
2041년	140,373,080원	184,828,180원	44,455,100원
2042년	161,144,800원	202,292,260원	37,147,460원
2043년	189,916,520원	219,756,340원	29,839,820원
2044년	214,688,240원	237,220,420원	22,532,180원
2045년	239,459,960원	254,684,500원	15,224,540원
2046년	264,231,680원	272,148,580원	7,916,900원
2047년	289,003,400원	289,612,660원	609,260원
2048년	313,775,120원	307,076,740원	-6,698,380원
2049년	338,546,840원	324,540,820원	-14,006,020원

셋째, 가입자의 건강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평균수명(남자 80.6세, 여자 86.6세, (2021년 통계청 기준))이상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액을 누적하여 비교하면

당겨 받기보다는 제때 받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건강보험료 등 고정지출비와 소득 크레바스를 생각하면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라고 되물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은퇴 이후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연금 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은퇴 · 노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해보자.

[출처: KB골든라이프 X]

이주영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종로 센터장

Title: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록일: 2023.06.22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요즘 주변에 “경기가 어렵다, 불황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이런 말이 회자된 지도 꽤 지났다.

실제 우리나라 작년 4분기의,

이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4%로 역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는 +0.3%에 그쳤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금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올해 미국의 4월 및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3.3%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도 현재 5.25%, 3.5%로, 글로벌 팬데믹 발생 직후인 3년 전의 0.25%,

0.5%보다 훨씬 .

이렇듯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

더구나 2021년 하반기 주가지수 고점에 주식을 산 뒤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투자를 꺼리기도 한다.

그런데 올 국내외 주요 주식시장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1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1.6%, 26.8% 상승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지수도 17.5%, 29.6% 뛰었다.

유럽 대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유로스톡스50지수와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각각 13.2%, 24.6% 상승했다.

다만, 주요 지수 중 상해종합지수와 홍콩H지수는

+3.4%, -3.4%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주가는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2022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용 IT 기기 수요가 줄면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SK하이닉스는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는 금년 3월에 감산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가격과 재고 추이에서는 희망의 빛이 감지된다.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3분기까지는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계속 쌓이기만 하던 재고도 곧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4분기부터는 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 5월초까지 등락을 보이며 바닥을 다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전망에 힘입어 5월 중순부터 상승 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증시 격언이 잘 들어맞는 국면이다.

당장은 불확실한 변수가 많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머지 않아 긍정적 요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도 그렇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 6월

이나 다음 달 즈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미국 서비스 물가는 둔화 속도가 느리고, 미·중 갈등도 여전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의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변수들로,

주가는 급상승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며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성장주, 반도체, 2차전지 테마 등 소수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오르는 업종과 종목이 더욱 다양해졌다.

즉,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현재는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매력적이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을 적절히 섞어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주식과 채권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아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는  
자산군과 스타일을 분산하는 전략, 즉 그물을 넓게 펼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극 고민할 때다.  
오인석 국민은행 WM고객그룹 수석전문위원

Title: 몰라서 놓치는 건강보험 활용 방법

등록일: 2023.06.21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최근 방송인 김구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병원도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를 매월 440만원 정도 낸다.'고 밝힌 가운데 '월급 1억 1천만원 넘는 직장인 3,326명... 건보료만 400만원'이라는 언론 기사도 나왔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건강보험제도, 이런 혜택도 알고 계셨나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비용 지원, 건강검진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제도를 살펴보면 암 예방 사업 일환인 암 검진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 본인부담액 상한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등이 있으며, 건강프로그램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치과급여(치석제거, 임플란트, 노인틀니)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

[금연치료 지원]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비용지원 등을 통해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①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②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③ 3회차부터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가 대상자격을 부여해 주고,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를 함께 등록

(고객센터 1577-1000)하면 질환 관리에 관한 추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치과급여]

치석제거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1인당 평생 2개 건강보험 적용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1인당 7년 건강보험 적용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급여가 새롭게 적용되는 질환도 확인하세요!

한편, 2023년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먼저, 중증아토피치료제

소아·청소년 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의 경우 기존 비급여 적용 시 연간 약 1,500만원이던 투약비용이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10%(약 1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립선암치료제도 건강보험 신규 적용 대상이 됐다. 전립선암치료제 '멀리다정'의 경우, 비급여 적용 시 투약 비용이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46만원으로 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 노안, 관절염, 폐렴, 치매 외에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난청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다들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는 난처한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각종 위험한 상황에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 등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1,179천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은 최대 131

만원)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고 청각장애복지카드 신청,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와 보청구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 후 검수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

얼마 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난다.

지하철에서 극 중 박동훈이 혼자 아픈 할머니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지안에게 묻는다.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시고 할머니한테 다른 자녀도 없는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돈을 못 내서 쫓겨났다고 답하는 이지안에게 박동훈은 “손녀는 부양의무자 아냐.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주소지를 분리해. 같이 사는데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냐...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해.”라고 말한다.

이지안이 그런 게 있었냐는 듯 박동훈을 쳐다보자, 박동훈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라고 말했고, 이후 이지안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무료로 모시게 된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듯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다.

KB골든라이프센터(목동) 진은경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3.06.08]

부동산/세무/재테크 전문가 칼럼 더보기>

Title: '1인가구 전성시대' 행복한 은퇴준비 노하우

등록일: 2023.06.01

☞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얼마전 지인 셋과 모처럼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셋은 모두 싱글, 필자만 기혼이다.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넷만 놓고 봤을 때 무려 75%가 싱글인 셈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는 7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3.4%를 차지했다.

세 가구당 한 가구인 셈이다.

1인가구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1인가구의 전성시대.

이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은퇴준비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첫째, 싱글이 아프면 더불로 힘들다. 건강 연금을 챙겨야 한다.

혼자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다.

결에서 보살펴 주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오롯이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

서러운 마음도 치유가 필요하지만, 치료기간 동안 의료비는 물론,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은퇴준비를 할 때 최우선 순위를 건강에 두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평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목돈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필요한 보험, 간병보험등 계획적으로 보험을 설계하고,

노후 생활비에 의료비를 별도로 책정에 놓아야 한다.

둘째, 싱글에게 연금은 든든한 효자다. 재무 연금을 챙겨야 한다.

젊어서는 젊음이 재산이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만한 효자가 없다.

목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이고, 연금을 가진 사람을

평생 부자라고 한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후의 삶도 길어졌다.

나홀로 온전히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싱글에게 있어, 연금은 든든한 자식과도 같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나머지 60%는 소득 활동기에 자동이체를 통한 강제저축으로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 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만들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활용한 4층 연금으로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원으로 활용해도 좋겠다.

셋째, 싱글에게 친구와 취미는 든든한 울타리다. 정서 연금을 챙겨야 한다.

일을 할 때는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지만,

은퇴하고 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관계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고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

또 취미를 발전시켜 제2의 직업으로 삶의 활력을 찾을 수도 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은 단순히 경제력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헬렌 브라운의 책 '나는 초라한 더불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의 제목처럼 더불이라고 다 초라하지도 않고, 싱글이 다 화려하지도 않다.

홀로 설 준비가 되어있는 싱글만이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늦지 않았다.

100세시대 은퇴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긴 호흡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려한 싱글보다는 행복한 싱글이 되길 응원한다.

조옥순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서초센터장(WM스타자문단)



Title: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항공우주 테마투자

등록일: 2023.05.04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항공우주 테마투자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당신이 우주를 찾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우주를 정복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고 다른 별들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게 당연하다.

그것은 인간의 DNA에 내재된 도전이다.”(일론 머스크, 2017년 3월, 국제천문학회 연설)

최근 수 년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우주산업의 경우 20세기까지만 해도 미 NASA와 같은 국방관련 정부기관들이

주도해오던 분야였지만,

20여년 전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각각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후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주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패권국가들간 국력 과시의 장이 아닌,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닌 비즈니스 섹터이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22년 말 4천 5백억불 전후로 추정되는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규모가 연간 13.7%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2030년에는 1조 4천억불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외 정책/외교적 이슈들 또한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약 50년이

지난 2017년 유인 달 탐사 목적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 외에도 영국, 일본, 한국 등 13개국이 공동참여 중인 본 프로젝트는 과거와 달리 발사체부터 착륙선 제작에까지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냉전 이후 군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한 유럽 각국과 동북아 지역분쟁의

당사국인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무장과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의 2/3는 항공기와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2021,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은 항공우주산업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1979년에 맺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21년에 폐지되면서 발사체와 장거리 유도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호재이다.

2022년 6월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로켓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적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항공우주산업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

최근 주목받는 항공우주산업의 유형으로는 인공위성 & 관련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 발사체(로켓) 제조, 방산 관련 항공물체 제조, 그리고 항법장비 및 위치정보 S/W

제조업 등이 있다.

우선 인공위성 & 관련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도심항공교통 등의 미래 IoT기술 구현

을 위해서는 차세대

초고속 6G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데 이를 상용화하려면 저궤도 위성 및 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과 상공에서도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과 유선망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서비스는 비즈니스 매력도가 높다.

향후 위성 통신서비스시장은 2020년 기준 1,730억달러에서 2040년에는 5,820억달러로 3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배경으로 EuroConsult는

2019년 205기 정도의 소형 통신위성 수요가

2029년에 5,687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력 및 물자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리는 발사체(로켓) 제조의 경우 우주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섹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초속 10배가 넘는 높은 속도를 내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연료와

더불어 과거에는 1회용으로 쓰고 버리게 되는 발사체 때문에 운송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2013~2016년간 스페이스X가 발사체인 팔콘헤비9의 사용 후 회수에 성공하면서 발사체(로켓)의 재사용이 상용화되었고

이로 인해 로켓 운송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해졌다.

2023년 4/3일 기준 팔콘헤비9의 1단 로켓 재사용 횟수는 총 149회에 달한다.

이런 비용감소에 따른 사업성 개선은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에 따른 창조적 혁신과 경쟁을 유도해 민간 우주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과거에는 1인당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했던 우주 관광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가능해 짐에 따라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은 상업화를 목표로 한 우주여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와 드론은 최근 국제분쟁이 심화되면서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항공산업 중 가장 부각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외에도 물류, 사진촬영 및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분야는 특히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의 대중화, 보편화 등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외에 항법장치 및 지상 관제장비 등 제조업과 관련 인프라 서비스 또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위성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 장비 제조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수단

국내외 간접투자상품

2023년 KB증권 리서치센터가 4대 핵심 주식투자테마 중 하나로 '항공우주'를 선정하는 등 최근 주식시장의 새로운 성장테마로서 항공우주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런 움직임

에 맞춰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이들 주식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는 다양한 간접투자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설정된 간접투자상품으로는

2023년 4월 현재

3종의 펀드

- ①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증권펀드
- ②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펀드
- ③ 다올KTB글로벌메타버스&우주산업1등증권펀드 와

2종의 ETF

- ① 우리WOORI미국S&P우주항공&디펜스증권ETF
- ② 한화ARIRANG우주항공&UAMiSelect증권ETF가 있다.

연초 이후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절반 이상은 설정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운용역량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고, 10년 이상의 장기성과를 기반으로 투자대상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현재 항공우주산업의 메인플레이어들의 과반수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흐름에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기에도 용이하다.

대표적으로는

- ① 항공우주와 방산관련 미국 대표주식들로 구성된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 ETF
- ② 항공우주와 방산업 관련주들의 동일 가중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Aerospace & Defense ETF,
- ③ 항공우주와 방산장비 개발, 제조 및 유통 관련주들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Invesco Aerospace & Defense ETF가 있다.

광재혁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전문위원

Title: 증시 불확실성 점검과 이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은?

등록일: 2023.04.19

금융시장의 불안 재확인

올해 글로벌 경제는 고강도 긴축의 부정적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다시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을 뜻하는

‘노랜딩(No Landing)’ 가능성도 부각될 만큼 금융시장의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는 연초 자산시장의 랠리가 나타난 상황과 달리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화 긴축 우려가 높아진 것과 함께 고금리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은행의 파산 우려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연간 전망에서 올해 경계할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신용 위험 확대가 현실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금융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자.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점 통과(Peak Out) 후 하락세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물가의 둔화 속도는 당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는 이유는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등의 증가로 근원 CPI의 둔화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초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다.

최근 발표한 2월 미국 CPI(3월 14일 발표, 현지 시각 기준)에서도 근원 CPI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양호한 고용시장 상황이 주거 비용 증가와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이 근원 CPI 강세의 주요 배경이다.

당분간 주거비 상승세가 지속되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 여부를 파악하려면 근원 CPI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후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도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국립은행(SNB)이

추가적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이되었다.

아울러 SVB처럼 구조가 취약한 또 다른 은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높은 탓에 주가가 급락하고 불안이 확대되자

미국 대형 은행이 나서서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해 우려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만약 은행의 추가 파산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금융시장은 유동성 경색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유동성 경색과 대출 자산 부실 같은 금융 불안의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시선이 시스템 리스크 확산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대응이 빠르게 발표되면서 파산에 따른 부정적 여파와 리스크 확산이 최소화하고

대형 은행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중소형 은행의 추가 파산 여부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시선은 다시 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민도 깊어졌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갈림길에서 연준의 계획대로 연내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빅스텝(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CS 은행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음에도 물가 안정에 더욱 초점을 맞춘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은행권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 안정이 필요할 경우

긴축 속도를 조절할 여지도 남겨두면서 시장의 불안을 다소 잠재운 모습이다.

연준도 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통화 긴축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연준의 긴축 완화로의 전환(Pivot)에 대한 기대는 설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변동성 국면의 투자 대안: 포트폴리오 투자

올해 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변동성이 재차 커졌다. 올해 초 자산시장의 랠리 국면에서

주식 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 투자자의 걱정이 커질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꾸준히 안정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처럼 서로 다른 특징의 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가 추구하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이 달라진다.

아울러 시장의 상황과 전망에 따라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 등의 요소보다 적절한 자산 배분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금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출처: GOLD&WISE 4월호]

최철호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투자전략 담당/KB WM스타자문단

Title: 주식 비중 확대,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산업

등록일: 2023.04.07

단기적(3개월) 관점에서 주식비중을 늘릴 때

경기침체를 우려했던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새해 들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연준(Fed)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기대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경기침체가 확실시되었던 유럽 증시가 따뜻한 날씨 덕분에 되살아났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비관론이 팽배했던 중국 증시는 리오프닝과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미국경제는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잘 견뎌내는 중이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던 공급망 교란도 개선되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낮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는 낙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중앙은행의 과잉긴축 우려 등 경기의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경기침체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KB증권은 글로벌 경제가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중 보다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2월 이후 지나쳤던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

금융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와 인건비가 비싼 시기에는 월급처럼 딱딱딱박 안정적인

소득이나 현금흐름이 발행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인컴(Income) 투자'가 핵심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인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데, 작년 4분기 대비 기대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진 장기채권보다는 단기 우량크레딧 채권의 금리 매력에 아직 높다.

경제 전망과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단기적(3개월) 관점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전술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다.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기업 이익전망의 하방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익전망이 반드시 바닥을 확인해야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P/E)이 이익전망에 선행하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반등하고

이익전망이 하방 조정될 때 투자자들은 주가 반등세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업이익(EPS)이 저점을 다질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전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단기 조정은 좋은 리밸런싱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장기금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급락하며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한 뒤 2월 이후 반등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한 장기국채를 이익실현하고 지나치게 비중을 축소했던 주식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금리 반등을 활용하여 장기국채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춰 잡아야 한다.

2월 초에 기록했던 국내 국채10년 금리의 저점 3.16%에는 연내 0.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2분기 중 뚜렷해질 것

2022년 전 세계 자산시장을 위축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이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22년 3월 이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4.5%p나 인상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요인은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다.

그러나 관성이 강한 주거비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낮아지는 중이다.

Zillow사가 발표하는 임대료 지수 역시 전년대비 변화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주거비는 주택가격 하락에 후행하며 하락할 전망이다.

주거비의 상승세가 약해지면 인플레이션 하락세도 뚜렷해질 것이다.

KB증권은 2분기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2%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WTI 기준 배럴당 70~80달러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가 만약 중국의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90~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는 리스크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4%대, 4분기 이후 3%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다.

물가지수의 전년대비 변화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2분기 중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새로운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인프라 산업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주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가기에 한다.

성장주의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미국은 이익 모멘텀이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둘째, 부채한도 협상으로 재정긴축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의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스닥 종합 지수의 분기별 전년 대비 주당순이익(EPS) 변화율은 이미 2022년 4분기에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익전망 하향 전망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기를 1년 앞둔 2007년 1월, 애플은 아이폰을 공개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등 스마트폰 생태계가 급성장했다.

미국은 2009~2010년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금융위기를 벗어났지만,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디파티'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재정 긴축론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했다.

이들의 영향으로 2011년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었고 재정이 성장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성장이 희소해지자 대형기술주들은 'Big Tech', 'FANG'이라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초강세를 나타냈다.

2023년 경제와 투자환경은 12년 전과 매우 닮아있다. 2016년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이 열렸고,

이후 인공지능(AI) 산업의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며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미국은 2020~2022년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팬데믹을 벗어났다.

그러나 2022년 중간선거를 통해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재정 긴축론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도 사상 최악의 부채한도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재정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이 성장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성장의

희소성이 돋보이게 되면 향후에도 대형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성장주가 주목받을 시기에 마침 떠오르는 성장산업이 있다.

첫째, ChatGPT의 영향으로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3월 이세돌-알파고 대국 이후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AI)은,

그동안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일상을 뒤흔들 만한 변화를 만들 계기는 없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한 OpenAI가 Generative(생성형) AI를 활용한 ChatGPT를 내놓으면서,

대중들은 AI의 효능감을 극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2월 8일, 검색시장의 92%를 차지하는 구글이 대항마로 내세운 Generative AI(Bard)의

시연회에서 잘못된 검색 결과가 나온 후 알파벳 주가는 이틀 동안 11.5% 급락했다.

Generative AI 경쟁이 기존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누구든 구글로부터 검색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1%p만 빼앗아 와도 연간 수익 2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희소한 성장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에 때마침 AI가 초대형 기술기업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의 기술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다.

둘째,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로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고가의 내구재 수요가 감소했다.

자동차 산업도 통화긴축의 타격을 받으며 테슬라 역시 영향을 받았다.

테슬라가 수요 감소에 전기차 가격 인하로 적극 대응하면서 경쟁사들을 압박하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기차 제조 생태계는 성장하겠지만 마진 압박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발전, 송전, 저장, 충전 수요 확대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KB증권)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GOLD&WISE 3월호]

신동준 KB증권 WM투자전략본부장/송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Title: 2023년,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등록일: 2023.03.29

연초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돌아오고 있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의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2040년 정점을 찍고 급감해 2055년 바닥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공적연금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 51.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여기에 높은 고령화 속도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마저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연금화제도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국민의 노후 자립도를 높이는 사적연금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부터 변화하는 사적연금

제도에는 무엇이 있고,

그 효과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IRP의 자기부담분은 기존의 퇴직연금과 다른 사적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이들 상품의 납입한도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며, 불입

할 때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수령할 때는 세법이 정하는 연금 형태로 저율 분리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는 소득에 따라 연 300만~400만원, IRP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적용해주었으며, 여기에 50세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표]를 보면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내 노후를 위해 연간

900만원까지 저축해두면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118만8,000원 혹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소소하지만 기존에는 세액공제 적용률 16.5%를 적용받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

이하였는데,이번에 4,5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2년 2023년~

5,5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52.8~

66만원) 600만원

(79.2~

99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1억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13.2% 300만원

(39.6만원)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2년 2023년~

5,500만원 이하

(4.5천만원) 16.5% 700만원

(92.4~

115.5만원) 900만원

(118.8~148.5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1억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13.2% 700만원(92.4만원)

② 적립금의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옵션 부여

또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옵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인출할 때도 세금혜택이 있어 은퇴 후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고령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은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통상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불입, 인출 기간 10년 이상)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표]에서처럼 사적연금의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으로만 합산과세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려고 올해부터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16.5% 분리과세 종결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은퇴자들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적립금 재원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X) 비과세 비과세

퇴직금 재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소득세의 60~70%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O) 기타소득세 :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

5.5%~3.3%(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단, 사적연금 합산 연 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혹은 16.5% 고율 분리과세 중 선택

③ IRP 추가 납입 조건 확대

덧붙여 1주택 고령가구에 대해 IRP의 추가 불입이 허용되었다.

IRP는 세제혜택 등 매력에 많은 금융 상품이지만 불입 한도가 매년 1,8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목돈이 생기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자로서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억원 한도로 그 차익을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ISA의 만기전환금액과 더불어 활용 시 부족한 사적연금계좌 잔액을 확충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 매각 자금의 일부도

사적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처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 제도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④ 퇴직연금 중 DC 및 IRP에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DC와 IRP계좌는 본인이 상품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도 짜야 하는 직접관리형 제도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걸 넣는 것

만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미국, 호주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막아보고자 나온 게 디폴트옵션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새로 가입했거나 기존 가입 상품이 만기가 되었는데



4주 동안 상품 선택을 안 한 경우 가입한 금융 기관이 2주 이내에 상품을 선택하라고 통지하게 되고, 만약 그때까지 지시를 안 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가입된다.

이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 보장 상품, MMF, 그리고 투자 상품 중에서도 TDF 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나 인프라 펀드처럼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 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즉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 말에 근퇴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스템 도입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사적연금, 적립 이상으로 운용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2023년 사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일단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퇴직 사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이유로 정기예금 등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지목하고 있다

[출처: GOLD&WISE 3월호]

곽재혁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수석전문위원

Title: 인컴의 시대(The Era of Income)

등록일: 2023.03.02

인컴의 시대(The Era of Income)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3년의 투자 환경도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계속해서 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긴축을 멈추고 싶어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곤혹스럽게 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지난 10년처럼 우상향하는 강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세를 통한 자본차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변화된 금융 환경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수익을 누릴 기회도 있을 것이다.

KB는 2023년 핵심(Core)

전략으로 '인컴(Income) 투자'를 제시한다. '인컴'은 월급과 같이 고정된 소득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급처럼 딱딱딱 안정적 소득이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분기 중반까지는 채권을 중심으로 한 인컴 투자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장기 수익 창출의 기회도 놓치기는 아쉽다. 글로벌 경기는 하반기에 침체에 빠지며 저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1~2개 분기를 선행하므로,

2분기를 전후로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위성(Satellite)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컴 투자가 중요한 이유,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진 인플레이션  
지금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높은, 1970년대에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환경이다. 구조적 인플레 요인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저물가, 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다.

구조적 인플레 요인은

첫째,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펼치면서 블록화와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고,

둘째, 감염병으로 노동력이

이탈하면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이 나타났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복지가 대폭 확대된 것도 전반적으로 비용을 높였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전환도 원자재 가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제적

제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영향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구조적 인플레 요인들은 물가를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쉽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판매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기업이익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높은 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밸류에이션, 즉 주가수익비율(PER)에는 부정적이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PER이 상승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미래에 대한 기대,

즉 PER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 주가는 넓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우상향의 강한 추세가 아닌 넓은 박스권 흐름이라면,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할 경우 자본차익은 결국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주식 투자의 총수익은 자본차익과 배당으로 구성된다. 주가가 우상향하며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압도적인 자본차익이 발생하므로 배당수익률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박스권의 횡보장에서는 다르다. 자본차익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과거 30년 동안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 총수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물가와 금리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인컴 투자는 첫째,

투자를 결정할 때 심리적이고 재무적인 완충 역할을 한다. 현금이 딱딱딱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정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도 있다. 인컴 자산은 채권, 배당주, 리츠, 인프라 등인데, 이런 자산들은

대부분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전통적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는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인컴 투자는

우량한 기업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배당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거나  
배당률을 높이는 기업은 우량한 기업이나 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분기 전후,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매수할 시점

위성 전략은 2분기를

전후로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다. 핵심 전략인 인컴 투자와 병행할 때 효과적이다.

주식은 넓은 박스권 내 횡보를 예상하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자본차익의 기회는 남아있다.

인플레이션이 화두이기 때문에 연준(Fed)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물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나 물가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다.

2022년에는 경기가 나빠지는데 공격적으로 긴축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를 더 위축시켰고,

2023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는 사이클상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정책은 거꾸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의 진폭을 키우는 요인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표현했다.

샤워실에서는 냉수와 온수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 중앙은행들이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확

틀었다가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찬물을 확 트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도

진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후행적인 물가보다는 경기 사이클을 보고 투자할 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주가가 넓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면, 저점 부근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던 1970년대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에 대규모 이익이 기대되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아왔던 '성장주'의 개념과는 다를 것이다. 금리와 인건비 등 비용이 비싸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은 몸집이 가벼우면서, 즉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이 유리하다. 어찌 보면 가치투자

에 가까운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시기에는 중소형주의 성과가 우월하기도 했다.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현재의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채비율도 낮고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들, 영업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들, 운전자본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들, 비즈니스에 대한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전통 기업들도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장기 성장 테마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반도체, 우주, 사이버보안, AI, 5G 등 과학기술 테마

둘째, 전기차(2차전지), 태양광/풍력, 수소/원전 등 에너지기술 테마

셋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소수 의견이지만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의미가 있는 가치주, 중소형주, 산업재, 신흥자원국 투자들이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와 인건비가 비싼 시기에는 인컴 투자가 유효한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권에 왔을 때 합리적 가격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할 기회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봐왔던 전통적인 성장주보다는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가치주에 가까운

성장주들, 비즈니스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 창출을 꾸준히 해나가는 기업들을

저가에 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가져간다면 인컴 투자와 함께 좋은 투자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KB증권)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GOLD&WISE 2월호]

신동준 KB증권 WM투자전략본부장/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Title: 연초 국내 주식 투자 점검

등록일: 2023.02.16

부진하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올해 국내 증시 전망]

올 한 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

되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주가는 현 상황보다는 미래 전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1.7%로 낮아지나, 내년에는 2.3%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피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주당순이익도 지난해 17%나 감소해 매우 부진했고, 올해도 3% 줄어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 여건 개선에 힘입어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연초 주식 시장은 부진한 올해 경제와 기업 실적 전망을 반영해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이후 경제와 기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참고로 인포맥스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의 금년 말 코스피 지수 예상 평균치는 2,400pt다.

[증시 반등 시기]

큰 흐름에서 주가는 경기 사이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경기 사이클상 2분기쯤에는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겪은 1970년 이후 총 8차례 경기 침체기를 살펴보면,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서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19.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에도 경기 정점에서 바닥까지 하락하는

기간이 과거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15개월째 하락 중이기 때문에

4~5개월 후에는 경기가 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경제활동 개선이 본격화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기도 2분기로 전망된다.

[투자 유망 테마]

연초 주식 시장은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적 전략이 유리하다.

예컨대,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우량주와 배당주, 경기 방어 업종 주식을 꼽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1년 수익률 상위 10개 국내 주식 ETF 중 5개가 고배당, 2개가 저변동성, 1개가 친환경 관련 ETF였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하므로 경기민감주와 성장주로 투자 대상 확대가 주효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이다.

[유의할 점]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기 경착륙을 꼽을 수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물가의 하락 전환과 완만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전제로 올해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물가 하락 전환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보다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도 연착륙 대신 경착륙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출처: GOLD&WISE 2월호]

이승희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투자전략 수석전문위원

Title: 퇴직할 때 챙겨야 할 6가지

등록일: 2023.01.18

정년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퇴직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직접 챙길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퇴직 후에는 미지의 영역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 퇴직금 수령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도 IRP 지급 의무화 대상이 되었다.

IRP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유도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연령에 따른 퇴직금 수령방법

##### \*현금 수령한

경우에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금 수령 가능

IRP로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11년째부터 40% 적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IRP로 운용되는 퇴직금은 은퇴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도 제외된다.

##### \*연간소득 : 금융소득(분리과세 제외),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에 한함),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본인 4.5%, 회사 4.5%)하여 납부한다.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는 없지만, 노후 자금 증액을 위해서 지역(임의)가입자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여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소득 활동이 없다면 일정 연령 해당 시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알아 두면 유용하다.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며,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 건강보험료 관리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50%, 개인이 50% 절반씩 납부하였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개인이 100%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일정 기준으로부터 평생 납부해야 하며 퇴사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된다.

퇴직 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퇴직을 고려한다면 미리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 보자.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확인해 보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보험료(본인부담분)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한 제도이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사업장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보장성보험 확인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장성보험의 중요성은 퇴직 후 더욱 커질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각종 제도를 확인해보자

##### 감액완납제도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 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

예를들어 암보험 보장 금액 1억 원 20년 납을 15년 후에 감액완납 신청하면 보장 금액 1억 원의 75%(15년/20년)인 7,5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보장 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이다.

연장정기보험

보험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보장받는 기간을 단축시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이다.

단체보험의 개인 전환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여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회사

내규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므로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단체보험의 개인 계약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시간 관리, 건강관리 등 비재무적 관리

막상 퇴직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중심으로 맺어온 인간관계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됨으로

오는 고립감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5월 기준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정년 60세 법안이 무색하게도 최근 10년간 5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 평균수명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자 80.5세, 여성 86.5세이다. 50세에 퇴직하여 30년 가까운

시간 은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퇴직 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시간 관리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좌우하게 된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재취업 준비

은퇴 후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것이다. 돈이나

직위 중심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취업 정보 사이트 Click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잡투게더 [www.jobtogether.net](http://www.jobtogether.net)

정부지원 일자리 [www.work.go.kr/ilmoa/main.do](http://www.work.go.kr/ilmoa/main.do)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하기 Click

1365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http://www.1365.go.kr)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www.kfvc.or.kr](http://www.kfvc.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http://www.welfare.net)

서울시 50+포탈 [www.50plus.or.kr](http://www.50plus.or.kr)

인간관계 재정립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를 부부, 자녀 등 가정 중심의 인간관계로 변화시키자.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부부로

친구처럼 소통하는 부모로 변화자. 주변 이웃이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면 더욱 풍요로운 은

퇴 생활이 된다.

2019년 우리나라는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면서 ‘100세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짧지 않은

30~40년

은퇴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퇴직은 불안, 초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설렘이 되기도 한다.

퇴직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다. 새로운 후반전이 열리는 아름다운 시작이다. 가족을 위해 잘 버텨온

전반전이였다면

스스로 퇴직을 축하하며 후반전은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해보자.

KB골든라이프센터(대구) 김재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2.12.09]

부동산/세무/재테크 전문가 칼럼 더보기>

Title: 2023년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관리 전략

등록일: 2023.01.05

2023년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관리 전략

“우리의 목표는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2022년 12월 14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정리 해고가 없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본다.”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2022년 12월 8일)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2022년 연초만 해도 포스트 팬데믹 원년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록다운 해제 등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증시 상승 같은 장밋빛 전망이 금융시장에 팽배했다. 물가에 대한 압박은 조금 있었지만, 이것이 시장의 긍정적 전망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인

연 9%대까지 폭등했다.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는 되었다.

결국 이는 금리 폭등을 불렀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의 동반 하락을 유발했다.

2023년 금융시장은 과연 어떨까?

예를 들어 연내 경기 침체(Recession)의 도래 여부와 강도, 그리고 은

어떨지, 또한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자산시장의 흐름과 향후 투자자로서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

"침체 폭은 크지 않지만 통화정책 전환에는 시간 소요"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능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는 역사적으로 예측력이 높아서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대응할 때 자주 인용된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현재 이 지표들이 머지않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5월에 기준선인 100을 하회한 후 현재까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이 지표

가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 향후 6~9개월 뒤 경기 침체 도래를 암시하는 만큼 20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2년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7월 초부터 마이너스(-)로 역전되었는데, 12월 8일

현재 그 폭이 -0.83%까지 벌어졌다.

장단기 금리 차도 역사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2년 내 경기 침체가 도래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위에서 살펴본 OECD 경기선행지수의 관찰과 흡사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예상되는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은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유럽 재정 위기에 비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2020~2021년 유동성 확대 여파가 과거처럼 민간(가계+기업)부채나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급증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신용 및 금융 경색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 연준의 긴축 강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작년 11월 들어 확산하고 있다.

마침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하반기 들어 정점을 찍고 하락함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증시도 10월 이후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이는 긴축 속도를 완화한다는 것이지 긴축에서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억제를 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연 2%)에 근접하기 전까지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금리와 별도로 연준이 자산 규모 축소를 위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만큼 일 것이다.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불확실성의 완화와 회복의 기대"

위에서 설명한 여건을 감안할 때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달러화 강세 등 주요 부문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예상처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 중 종료되면, 이에 따른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달러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세는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경기 침체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신용 위험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자산시장의 회복 기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고 통화긴축 사이클의 후반부 진입 등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

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시 투자 매력력이 높은 국채 등 한 반면,

투기 등급의 고금리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기업 실적 둔화 등의 여파로 상반기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 1년간의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다.

여기에 하반기 이후 제조업 경기의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달러가 진정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와 수급 여건 개선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본격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와 무관하게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한 고배당 우량 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가 전망된다.

한편 2022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성장주는 물가 압박과 통화정책 전환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컨센서스상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 물론 최근 1년간 전반적 조정으로 가격 매력력이 높아진 만큼 이다.

2023년의 자산관리 포인트

"자산 배분 원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2023년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높은 가격 변동성이 예상됨에 따라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높게 나타났던 주식과 채권 간의 상관관계가 2023년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산 배분 효과도 작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다.

하지만 자산 배분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게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 제시하는

추천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고루 분산된 케이봇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매월 제시하고 있다.

만약 그마저 번거롭다면 하나의 상품으로 전 세계 주식, 채권, 대체 자산에 널리 분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TDF, EMP 등 자산 배분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상품보다는 인데, 이유는 이들 펀드마다 운용 전략이나

투자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객재혁 자산관리 수석전문위원

[출처: GOLD & WISE, 2023년 1월호]

▲ 부자매거진 보러가기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2023년 명심할 투자 원칙 3가지

등록일: 2022.12.09

2023년 명심할  
투자 원칙 3가지

올해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경기침체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과 채권 등을 보였다.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역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고 마냥 움츠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불확실한 시기에 명심할 투자 원칙을 하나씩 꼽아보자.

욕심을 줄이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자.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위험은 투자 실패 확률을 말한다. 위험이 크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평소보다 수익률 목표를 다소 낮추더라도 투자 위험을 줄여 높아진 투자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일정 금액 보유하는 것이다.

현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상품성도 많이 좋아졌다.

초저금리 시기에는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현금성 상품의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략을 바꾸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미래 잠재력이 큰 기업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주목받는다.

따라서 투자 전략도 자본 차익에서 인컴으로 중심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은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이다. ① 금리 상승으로 이자 수준이 높아졌고, ② 인플레이션도 점차 낮아질 것이고,

③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침체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주식은 성장성보다는 안정적 재무구조와 꾸준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가진 우량 기업 주식이나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어적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겁을 먹지 말자

2023년도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겁을 먹지는 말자.

올해 거의 모든 투자자가 크고 작은 손실을 입었고, 투자자산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좌절하거나, 겁을 먹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침체나 금융시장 위기 당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에 성공했고,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외 기관의 2023년 경제 전망은 대체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망이 맞다면 내년 자산시장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산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일정 부분 주식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KB국민은행 이승희 투자전략 수석전문위원

[출처: GOLD & WISE, 2022년 12월호]

▲ 부자매거진 보러가기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팩트체크, 함께 알면 좋은 국민연금 이야기

등록일: 2022.11.29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3층 연금: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중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중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노후

준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Fact 1】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금은 납입 전체에서 소득공제 받은 비율만큼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업주부나 퇴직자 등 임의 가입자가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도 '과세 제외기여금'으로 분류되어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이다.

국민연금 수급 시 과세기준

세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여기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다.

혼자 살면서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수령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Fact 2】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다만,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Fact 3】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세전, 세후 금액으로 알아볼 수 있다.

【Fact 4】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까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 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이기에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 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안심통장은 수급권보호 금액(현재 185만 원)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Fact 5】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27만3,000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변경, 그간 내지 않던 지역건보료를 내게 되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이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한다. 공적연금은 전액이 종합소득 대상이며, 합산되는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이다.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 강보험료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50%에 건강보험료율(6.99%)을 곱하여

12로 나눈

것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바뀐다. 1.49% 인상되어 7.09%가 적용될 예정이다.

KB골든라이프센터(목동) 진은경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2.11.18]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적립식 투자의 시작은? 지금 바로!

등록일: 2022.10.27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유는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올라갈 것만 같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만 같은 심리적 편견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발 공급 충격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 과연 이와 같은 혼돈의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인 편견도 잡아주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은 없을까?

'있다.' 바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적금 붓듯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 :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 등’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우선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로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반 토막 날 때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100주에서 200주로 늘어난다.

따라서 주가가 내려갈 때 내가 주식을 사는 평균 가격을 낮춰 향후 이익이 날 가능성도 높여 준다.

또 투자 시점이 매월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산투자 효과가 난다.

마지막으로 적금 붓듯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덜해서 장기 투자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적립식 투자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적립식 투자 원칙 :

‘토끼가 아닌, 거북이처럼’

적립식 투자는 한 번에 크게 배팅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다.

토끼보다는 거북이 같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방에 목표를 도달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토끼처럼 목표를 눈앞에 두고 실패할 수 있다.

투자는 거북이처럼 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가며,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경기가 순환하면서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 투자했는지 보다 매월 일정하게 3~5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는지가 중요하다.

중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월 1회 투자 루틴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식 투자에 맞는 금융상품 :

인덱스펀드

안정적인 장기투자에 어울리는 적립식 투자를 당신이 선택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해야 한다.

물론 특정 주식을 골라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파산이나 상장폐지와 같은 위험을 감안할 때 소수의 개별 주식은 적립식 투자에 적합

하지 않다.

그보다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이 좋은데 해당 지역의 증시와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펀드 중에서는 인덱스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펀드이다.

주가 상승과 하락에 맞춰 상품을 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투자 방법이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적합하지 않다.

펀드 수수료가 적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ip] 인덱스펀드의 장점

위험 인덱스 종목에 분산하여 위험이 낮음

보수 보수가 낮아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

수익 증시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져 예측 용이

적립식 연금저축펀드 :

여유로운 인생 2막 준비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미리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고령화와 저성장 때문에 수입이 늘지 않아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금리까지 낮다면 '노후 자금 부족 → 빈곤'의 위험에 빠질 가

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는 이런 2030세대의 노후 대비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통상 연금저축펀드로는 연간 400만 원, IRP를 활용하면 연간 700만 원(단, 연금저축펀드 불입액 합산) 한도로 통상

까  
지 더으로 받을 수 있다.

2030세대 같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은퇴까지 20년 이상 여유가 있는 만큼 더욱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가입 가능한 펀드들의 종류도 일반 펀드에 못지않게 다양해서 선택의 폭 또한 넓다.

물론 이들 상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은퇴 후의 연금 재원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연금저축&개인형IRP 세액공제

충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16.5%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13.2%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IRP합산 700만원) 13.2%

투자자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성이다.

주가가 오를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투자했다가 오르면 안도에 한숨을 쉬지만, 떨어지면 조금만 참았다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많은 전문가가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지만, 최종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다. 적중률은 반반이다.

지금 이 순간 주가가 최저점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해라.

그렇지 않다면 적립식으로 시간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매일 자동이체 원칙을 고수하고 우직하게 무소에 뽕처럼 가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수선한 주식시장에서 적립식 투자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군가 적립식 투자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지금 바로!” 라고 말하고 싶다.

KB골드라이프센터(은평) 조옥순 센터장

[출처: KB골드라이프X 기고문, 2022.09.09]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은퇴 질문 BEST 3

등록일: 2022.10.26

KB골드라이프센터에는 은퇴를 앞둔 고객들이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번에는 은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렇게 드리는 솔루션은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정형화된 공식을 대입해 얻을 수 있는 딱 떨어진 해답은 아니다.  
다만,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고, 조금 다른 답안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은퇴 이후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결국 삶과 행복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1]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퇴 준비 자금은 충분한가요?

거의 모든 고객이 질문하는 내용이다.

이 질문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은퇴 전 생활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후 수입·지출을 감안, 기대

여명까지의 현금흐름의 과소 여부를 진단한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상담 고객 중 절반 이상은 기대 여명까지의 현금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은퇴 후 수입원은 그동안 모아 놓은 자산과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정도인데,  
은퇴 후 생활비에, 자녀 독립 비용에, 나이 들어 지출될 요양비까지 결국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의 노후 생활에 정말 적신호가 켜진 것일까?

아래 표는 각 나라의 '잘사는 기준(이른바 중산층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차이점을 한 번 찾아보자.

[표] 국가별 잘사는 기준

구 분 잘사는 기준 비 고

한국 # 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

# 월 500만원 이상 급여

# 예금잔고 1억원 이 상 등 재무적

실현 목표

프랑스 # 1개 이의 외국어

# 직접 즐기는 스포츠

#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및

사회봉사

영국 # 불의·불법에 의연하게 대처

#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페어플레이할 것 등 공익과

신념

차이점이 뭘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재무적인 비중보다는 다른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퇴 자산을 잘 갖추고도 불편한 인간관계, 우울감, 상실감 등으로 노후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겸 철학자인 에이브러햄 해럴드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가 정립한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요소 즉,

돈이나 건강으로 만족을 얻는 단계는 욕구 8단계 중 기본 욕구인 2단계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배움, 취미활동, 자아실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 가치에 중점을 둔 생애 설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 매슬로 욕구 8단계

단계별 욕 구

1단계 생리 음식/물 결핍욕구

(기본욕구)

2단계 안전 돈/건강

3단계 소속 우정/관계

4단계 자존감 성취/존경

5단계 인지적 배움 성장욕구

(자아실현)

6단계 심미적 균형추구  
7단계 자아실현 자아실현  
8단계 자기초월 이타적

[질문 2] 은퇴 후 달라진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은퇴 후에는 많은 것이 변한다.

한두 달간은 휴식을 취하며 편안함을 느끼다가도, 점차 달라진 생활패턴, 인간관계 속에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직장에서 통용되던 직함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아니다. 어느 순간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  
도 달라졌음  
을 느끼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어내며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사회학자 는 이렇게 은퇴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6단계로 소개하고 있다.

[참고] 애칠리 은퇴 6단계

단계별 주요 특징

은퇴 준비 은퇴 후 건강 및 주거 대책

은퇴 행복감, 휴식, 기분 전환 등

환멸 기분 전환 후의 실망, 불안감 등

적응 현실 직시,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은퇴 안정기 사회적 역할, 정체감 형성 등

은퇴 종결 장애, 쇠약, 역할 종결 등

많은 분들이 '환멸' 단계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다.

은퇴 이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은퇴 전 사고와 태도를 가정에서 고수하는 경우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  
이 있다.

이 단계를 잘 뛰어넘으려면 내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고 변화해야 한다.

나의 가족관계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한다.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바로가기)

홈페이지의 자가 진단 메뉴에서 대인관계, 여가 활동, 건강, 국민연금준비정도, 재무 건전성 등을 간단히 진단해볼 수 있다.

결과를 잘 참고해 개선할 점은 꼭 개선하는 등 도움을 받아보자. 가족을 바꿀 수는 없으나 나는 바꿀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질문 3] 은퇴자금 투자수익률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큰 수익률에는 큰 변동성(리스크)이 따르게 된다.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연금 수령금액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적립률을 높이면 된다. 수익률이 다소 저조할지라도 적립률을 높이면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은 올라간다.

즉,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좋다.

아래 그래프는 과거 10년간의 미국 S&P500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10년 전부터 연금 자산을 꾸준히 투자했다면 현재 투자원금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을 실  
현했  
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활동 기간 연금 자산의 적립과 수익률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도상 연금 수령 기간은 짧게는 5년부터 10년 이상이며, 은퇴 이후 생애 크레바스 구간(은퇴 시점~국민연금 수령 기간)도  
대략 10년 정도  
를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전 10년부터 은퇴 후 10년 즉, 연금 자산의 적립과 인출 종료 시점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재무적 부분을 채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느낀 것은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에 따라 만

족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비재무적인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개인 마인드나 삶의 철학

을 정돈하고 가족관계를 잘 가꿔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전국 14개소에 위치한 KB골드라이프센터에서는 수년간 자산관리 경력에서 쌓은 센터장이 은퇴 설계 노하우를 토대로 은퇴/노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  
다.

은퇴 및 노후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아보자.

▶ KB골든라이프센터 은퇴설계 상담 신청하기

KB골든라이프센터(일산) 장기홍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2.10.14]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친 ETF의 활용 포인트

등록일: 2022.10.06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친

ETF의 활용 포인트

“사람들은 항상 좋은 펀드와 훌륭한 펀드매니저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막상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는 드물다. 투자자 대부분은 인덱스펀드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쌓게 될 것이다.”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액티브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가 남긴 이 말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펀드매니저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운 한편, 시장의

추가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수료도 저렴한 인덱스펀드가 액티브펀드에 비해 투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자 인덱스펀드에서도 상품 구조상 환매 요청과 손익 확정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이슈가 단점으로 지목되었다.

통상 환매 요청 후 1~2일이 지난 종가로 손익이 정해지다 보니 그사이 돌발 사태로 주식이 급락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실제로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인덱스펀드인 동시에 거래소에서 개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에 대한 매력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ETF의 관심과 선호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ETF의 특징과 장점

ETF는 인덱스펀드와 개별 주식투자의 장점을 겸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ETF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1좌 구

매한다면, 국내 대표 우량주 200개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보통 ETF 1좌의 가격은 1만~5만원에 불과하다

또 인덱스펀드로서 위험관리가 잘되어 있어 마음 편하게 장기투자할 수 있다.

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하므로 특정 기업의 주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주식 종목 선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더욱 적합하다.

앞서 본 것처럼 펀드의 상품 구조상 시차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변동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펀드는 환매 요청 시점과 손익 결정일 간 괴리로 인해 그사이에 뜻하지 않게 성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만큼 그 시점의 시가를 반영해 매매된다.

이 외에 ETF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운용·관리 보수가 액티브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져 이에 관한 예측이 용이하며,

공시제도를 통해 매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하는 장점도 있다.

자산군·지역·전략에 따른

다양한 ETF의 유형

KOSPI200처럼 국내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로 최초로 시작된 ETF는 그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의 S&P500, 일본의 NIKKEI225, 중국의 HSCEI 등 해외 추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물론, 최근에는 국내 외 채권 및 원자재,

리츠 등 다양한 자산의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ETF를 활용하면 안방에서 HTS(Home Trading System)만으로도 전문 금융 기관처럼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또 자동차, 반도체, IT, 소비재 등 특정 업종지수를 추종하는 섹터(업종)형 ETF나 배당성장, 저변동성주, 메타버스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스타일을 지수화해 투

자할 수 있는 테마형 ETF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추종하는 지수의 일일 변동폭을 100%가 아닌 150% 또는 200% 추종하거나() 반대로 추종()하는 상품도 있다

이 외에 ETF는 국내에서 설정되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역내 ETF와 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역외 ETF로 나뉜다.

해당 국가의 증시 개장 시간대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은 분류과세되어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고소득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거래가 자유로운 ETF의 특성과 초과수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펀드의 장점을 겸비한 가 주목받고 있다.

자산의 일정 비율(통상 30% 이내)은 추종지수를 따라갈 필요 없이 적극적 투자 운용이 가능하며 상품명에 ‘액티브’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TF의 세금 부과 기준

ETF는 세금 부과 형태에 따라 국내에서(역내) 설정되었으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와, 그리고 해외에서 설정되어 거래되는 역외 ETF로 구분할 수 있다.

[표]처럼 국내 주식형(역내) ETF에는 매매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그 밖의 역내 ETF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한편 역외 ETF에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표] ETF의 유형별 세금 부과 기준1)

ETF 유형 매매차익 분배금

역내 국내

주식형 비과세 과세

(배당소득)

역내 국내

주식형 외 과세

(배당소득)2) 과세

(배당소득)2)

역외 과세

(양도소득/세율 22%)3) 과세

(배당소득)

1) 총수익=매매차익+분배금

2) 단,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분배금과 해당 기간의

관련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

은 값을 적용

3)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ETF 선택 및 투자 시 유의사항

최근 동일한 지역이나 섹터, 테마에 투자하는 ETF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데도 과거 성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ETF라도 나에게 맞는, 좋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려면 몇 가지 확인하거나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ETF를 선택할 때는 추적오차가 낮은 상품을 찾는다.

추적오차는 ETF의 수익률이 기초지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추적오차가 낮을수록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좋은 ETF라고 할 수 있

다.

동시에 ETF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괴리율이 높으면 시장 유동성이 낮아 거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편입 종목 구성 방식에 따라 실제 성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ETF 선택 시 편입 종목 구성 방식부터 살펴봐야 한다.

구성 방식은 크게 시가총액가중방식, 동일가중방식, 팩터가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시장대표지수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원한다면 위의 셋 중 대형주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가중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최근에 대형 주도주 상승폭이 너무 가팔라서 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가중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특정 재무지표가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팩터가중방식을 찾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환헤지형과 환노출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ETF의 명칭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원화와 미국 달러 간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한 상품은 종목 뒤에 환헤지를 의미하는 (H)기호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 원자재 가격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물 대신 동일한 규모의 선물투자로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의 선물-현물 가격 차이가 심하면 예상과 달리 실제 상품 가격과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가격이나 지수의 상승 기대가 시장에 팽배할 때 이들 ETF의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버리지 ETF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배 레버리지 ETF는 해당 지수의 일일 변동폭의 2배 전후로 움직이는데, 이 경우 가격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장기투자 시 발생하는 변동성의 부작용이 레버리지 ETF 수익률을 악화시킨다.

ETF의 진화, 'EMP' :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

ETF 시장이 4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자 EMP(ETF Managed Portfolio)란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EMP란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다양한 종목의 ETF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EMP펀드, 랩은 EMP랩이라고 한다.

EMP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과거 개별 주식으로 할 때보다 훨씬 위험분산이 잘된 투자 성향별 효

율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TF를 활용한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다양한 유형과 스타일의 EMP 상품이 출시되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객재혁 자산관리 수석전문위원

[출처: GOLD & WISE, 2022년 9월호]

▲ 부자매거진 보러가기

KB국민은행 전문가의 특별한

자산관리 비법을 경험해보세요.

▶ 전문가칼럼 바로가기

Title: 주식 외에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TARA)' 시기

등록일: 2022.08.04

주식 외에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TARA)' 시기

초여름부터 걱정되는

추운 겨울

KB증권은 미국과 유로존,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 중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빠른 긴축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기업들의 감원과 주문 취소 등이 경기침체를 앞당기는 배경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연율 -1.0%, -1.3%의 역성장을

전망한다. 다만 지금과 경제 환경이 비슷했던 1969~70년의 침체 시기와 비교해보면, 경제 전반의 취약성이

아직 높지 않아 이번 경기침체의 폭은 비교적

온건할 듯하다.

반면 에너지 불안이 해소될 조짐이 없는 유로존은

물가 상승과 긴축 우려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에 가까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도 1,300원대로 높아진 달러/원

환율은 수출에 우호적이나 선진국 소비가 둔화하면서 수출이 동반 감소할 것이다. 선진국들과 함께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6%, -0.1%의

역성장을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부양 정책이 대외 경기

불안을 일부 상쇄하며 2022년 3.7%, 2023년 4% 내외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역성장은 아니지만 3~4%대 수준의 저성장이 익숙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가 위험요인이다. 투자은행인 BoA메릴린치의 7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도 극대화된 상태다.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응답률과 그렇지 않은 응답률의 격차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상승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과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국채 10년과 2년물 금리차는 7월 5일 역전이 시작된 이후 2006년 이후 최대인 -0.22%p까지 확대되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반등하는 주식시장

흥미로운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것이며, 결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장기간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향으로 장기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반락하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7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이 힘을 내고 있다.

실제 7월 중순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1% 급등하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틀 뒤 미시건대학교에서 공개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8%로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후퇴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미 경기 둔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어 통화 긴축 강도를 계속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연말 약 3.75%까지 인상한 후 내년부터는 오히려 인하 사이클로 전환할 것이며, 2024년 상반기 말까지는 2.75%로 낮춘다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6월 중순 고점 3.47%를 기록한 이후 7월 22일 현재 2.80% 아래로 내려왔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국제유가도 WTI 기준 100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

그러나 경기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급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결국 공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인플레이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의 공급 차질 이슈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처럼 경기 하강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첫째,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무역분쟁 등으로 본격화된 이후,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이 한 공급망 내에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급망 간 호환성이 낮아지면서, 이는 기존 공급망의 효율을 낮추고 비용을 높였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가격 인상은 수요 위축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0년 이후 팬데믹은 상품 수요를 높여 공급망에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탈에 따른 공급 위축을 통해 비용 부담을 높였다. 이후에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때마다 경제봉쇄 조치가 단행되면서 공급의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이동 제한으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셋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큰 비용이 치러지고 있는 점도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화석연료에 비해 낮아졌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 화석연료 발전 시스템과도 차별화된다. 그러나 화석연료 발전은 이미 시설 투자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시설 투자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급망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넷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에너지와 곡물의 공급망에 부정적 충격을 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모두 소극적인 상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산이 즉각 늘지 못하면서 공급 비용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품 가격과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아마존 효과’가 소멸되었다.

전통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빼앗아 성장하던 아마존도 운송 차질과 비용 상승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TARA)’

시기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을

이미 많이 줄여둔 상태다. 경기침체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실제 7월 펀드매니저 설문에서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2001년 이후 최대치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놓았던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식뿐 아니라 채권의 비중도 많이 줄여놓았다는 점이 다르다.

주식 투자자들은 현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초대형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의 6개월 금리가 3.95%에 달하는 시기다.

통화완화 환경에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 외에 대안이 없던(TINA, There Is No Alternative)’ 시기에서,

채권 금리의 매력에 높아져서 ‘주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TARA,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 매력과 함께 자본차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채권 투자를 늘릴 시점이다.

KB증권 신동준 WM솔루션총괄본부장

[출처: GOLD & WISE, 2022년 8월호]

부자들이 사랑하는 매거진 보러가기

Title: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금융지식] 대표적인 세테크 금융상품 ISA 알아보기

등록일: 2022.07.18

은퇴 이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생애주기에 맞는 촘촘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리스크와 수익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테크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는 ISA가 있다. ISA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어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인, 어업인의 금융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선보인 상품이다. 그렇다면 ISA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입자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며, 발생한 수익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연간 2,000만원 한도

(총 1억원, 이월 가능)로 납입 가능하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 고객은 1억원에서 '해당 상품의 잔여 한도 x 잔여기간'만큼 차감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편입을 허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되어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지 않아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의 절세 기능

ISA는 만기(의무가입 기간) 후 수령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원)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데,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세액공제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 이체해야 한다.

또 다른 세제 혜택으로 계좌 내 편입 상품별 이익/손실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200만원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된다.

단,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사업소득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 이후 원하는 날짜로 만기 설정

을 할 수 있고, 가입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손쉽게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며, 납입원금 범위 내(보

수 및 예상 세금 등 제외)에서 일부 해지도 가능해 유용하다.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소득 도입으로 상장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나, ISA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비과세가 유지된다.

ISA는 연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많아 사회 초년생에게 특히 유리하다.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자동차 구입 등 목돈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기도 하다.

ISA

관련 Q&A

‘ISA일임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나요?

ISA일임형은 고객에게 투자 일임을 받아 은행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자산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 배분전략을 활용해 개별 펀드 가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자산 배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일임형’ 상품에 가입하면 상품 운용을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급등락 등 변동성 증가 시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성과 요인 분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실행, 주기적인 정량/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시장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ISA는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스타뱅킹)을 통한 신규, 해지, 조회,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1인당 5,000만원 이하, 2022년까지 비과세)

●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3,000만원 이하, 2022년까지 비과세, 2023년 5% 분리과세, 2024년 이후 9% 분리과세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조합 등 출자금 : 1인당 1,000만원 이하, 2022년까지 비과세, 2023년 5% 분리과세, 2024년 이후 9% 분리과세

KB골든라이프센터(의정부) 김현정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2.04.06]

▶KB골든라이프센터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Title: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금융지식] 저축성 보험 세제 혜택, 가입 시점부터 살펴라!

등록일: 2022.07.12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 하기 위해, 혹은 노후 생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 상품을 한번쯤 고민해 봤을 것이다. 저축성 보험이란 보험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액이 더 많은 보험이다.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장기적인 저축에 효과적이며, 여러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저축성 보험이 사랑받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이 손꼽힌다.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계약 날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다르지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꾸준히 납부하면 쓸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다. 각종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꼼꼼한 비교가 필요 하다.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험 모집 등에 필요한 비용,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공시이율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 관련 비용은 낮고 공시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비과세 혜택 조건

저축성 보험은 가입 날짜와 납입 형태에 따라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비과세 조건을 알고 싶다면, 보험 계약일이 2013년 2월 15일 전인지 이후인지, 2017년 4월 1일 이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자.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월적립식인지, 일시납인지 여부를 보고, 납입한 금액과 형태를 살펴 비과세 혜택의 조건에 부합한지 가능할 수 있다.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소득세법시행령 25조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신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일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요건이 비교적 너그럽다. 일시납과 월납 여부에 관계 없이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보험금을 처음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연금 형태로 확정된기간 동안 보험료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일이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

이라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보험금을 처음 납부한 날(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납입한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셋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한다. 이때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했을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기본보험료를 선납했을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가입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라면 위

세 개 조건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150만원에는 가입자의 모든 월적립식 보험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금이 포함된다. 또한 납입이 끝났지만 계약 기간에 있는 보험의 기본보험료도 합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 월 150만원 한도에 포

함되지 않는 보험료는?

150만원에 합산하지 않는 보험은 2가지로 규정돼 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12조의 2 1항,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상 상해,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 계약이다. 둘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12조의2 2항,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상 상해, 자산의 멸실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와 보험계약 부활을 위한 납입보험료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일이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

이인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 한 명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납입 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2017년 4월 1일이후부터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달라진 점 말고는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 조건이 맞더라도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1억5,000만원 가입 시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이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이일 경우 계약자 당 납입한 보험료가 2억원 이내이므로, 1억5,000만원을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이 1억원을 가입하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5,000만원을 더 납입하더라도, 기존

계약 시점의 비과세 한도인 2억원에 부합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하지요. 다만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했다면, 1억원 초과이므로 과세가 됩니다.

KB골든라이프센터(의정부) 김현정 센터장

[출처: KB골든라이프X 기고문, 2022.03.07]

▶KB골든라이프센터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Title: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금융지식] 효과적인 ETF 투자 방법

등록일: 2022.07.06

직장생활 15년 차인 오국민(가명, 남 45세) 고객은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야 노후 준비 진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ETF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며 KB골드라이프센터로 상담을 신청했다. 오국민 고객이 관심을 가진 ETF 상품의 투자 전략과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란?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는 요즘, 연금 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금 자산에 인플레이션을 헷지 할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결국 투자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지수(벤치마크) 또는 특정자산(원자재, 원유, 달러, 금, 에너지 화학, 2차전지 등)의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진 펀드를 상장지수펀드라고 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고, 개별 주식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 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진국형 투자상품이다.

ETF 투자 핵심 전략 및 투자 방법

분할 매수 전략(Cost-Average)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것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투자 금액을 비율로 나눈 후 가격이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하면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어-위성전략(Core- Satellite)

기본 ETF인 국가 산업 전체 지수를 쫓는 지수형 ETF(국내외 대표 지수)를 핵심으로 하고, 성장이 유망시 되는 섹터 ETF로 분산해서 초과수익도 함께 추구하는 전략을 뜻한다. 하나의 ETF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ETF를 골고루 매수해 위험성을 낮추고,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투자 금액을 비율로 나눈 후 가격이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하면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시장지수 ETF)+위성(섹터, 해외, 상품 ETF 등)

로테이션 전략(Rotation)

로테이션 전략의 핵심은 바로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과 상승은 예측할 수 없지만, 거시적인 흐름과 시장 방향성 등은 예측이 가능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 국가의 시장 환경도 매년 차이가 있으므로 큰 추세를 보고 투자한다.

ETF 투자의 매력과 주의할 점

연초 이후의 글로벌 증시가 보여주듯이, 시장이 녹록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의 경우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매우 저렴하고,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없기에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소액으로 분할매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투자(국내 지수, 해외 지수, 원유, 2차전지 등)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다는 점 역시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제도 중 DC 및 기업형 IRP, 그리고 개인형 IRP를 운용할 때는 ETF(해외 ETF포함)를 활용하면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여전히 ETF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 역시 존재한다. 먼저 급변하는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지수상품 ETF는 조세원칙에 따라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ETF의 장점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입하기를 권한다.

KB골드라이프센터(부산) 김석경 센터장

[출처: KB골드라이프X 기고문, 2022.06.27]

Title: 초저금리 시대 마감, 3가지 자산관리 시사점

등록일: 2022.06.29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가 4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물가불안을 방지하면 인플레이션은 견잡을 수 없게 되어 경제 안정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 1%대 초반이던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현재 3%를 넘어섰고, 0.6% 수준으로까지 낮아진 미국의 10년 국채수익률도 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아진 미국의 실질 국채금리가 금년 들어 빠르게 상승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 마이너스 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초저금리의 명암

초저금리, 특히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유럽의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로 하락해 채권을 사는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까지 겹쳐 극약처방으로 초저금리 정책이 시행된 것이지만

, 그로 인한 명암은 분명했습니다. 일단 초저금리 효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초저금리로 풀려난 막대한 유동

성이 투자 열풍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저축을 통한 재산 증식보다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고위험 상품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돈 권하는 사회'의

문제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자산 가격 상승은 자산 버블

우려를 키웠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빈부 격차 문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초저금리 복귀는 어려움

지금과 같은 빠른 금리 상승은 언젠가는 진정될

것입니다. 높아진 금리가 가계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활동을 둔화시키면 거꾸로 금리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저금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자산관리 시사점

초저금리 시대 마감에 따른 자산관리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높아진 금리는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위험 자산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커질 것

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할인 폭은 고위험 자산일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 만약 전체 자산 중 고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크게 상승했다면

,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상승은 차입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 소위 빚투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현금성 상품이나 채권이 투자 자산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이들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리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권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들 자산의 상품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금과 채권은 주식 같은 초고위험 자산과 분산투자 효과도 높기 때문에 적절히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Title: '금퇴족'들에게 5가지 공통점이 있다

등록일: 2022.02.10

'금퇴족'들에게 5가지 공통점이 있다

☞ 은퇴노후 관련 추천 동영상

여의도5번출구 바로보기 ☞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일정한 수입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은퇴가 두렵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일명 '금퇴족'이다. 금퇴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조기 연금 가입

2)주식, 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

3)내집 마련

4)소득과 금융자산 규모에 따른 계획적 지출 관리

5)철저한 투자정보 수집 및 자금운용 등이다.

조기 연금 가입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추천한다.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IRP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세금도 3.3~5.5% 저율 과세된다.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 징수 없이 재투자할 수 있고,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이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IRP 가입금액은 압류가 불가하므로 은퇴자금이 보장된다.

주식과 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IRP는 원금보장형 상품외에도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을 70%까지 담을 수 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운용하길 권한다.

금퇴족의 세 번째 특징인 계획적 지출 관리는 일률적으로 코치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만의 소비 원칙을 세우면 도움이 된다. “당장 소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5년 후 얻을 이익을 생각해본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산다” 등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에 신경 쓰는 식이다.

가입 중인 보험은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중복 보장된 상품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협회가 제공하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이트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과 보험회사, 미청구 보험금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철저한 투자정보 수집과 자금 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IRP의 수익률 알림 문자를 신청해놓고, 상품 리밸런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면 어떨까.

김현정 <국민은행 KB골드라이프센터 의정부센터장>

[2022. 2. 7 한국경제 기고문]

부동산/세무/재테크 전문가 칼럼 더보기>

Title: 올 투자 테마는 위드 코로나, 탈세계화, 인플레이 헤지

등록일: 2022.01.20

올 투자 테마는 위드 코로나, 탈세계화, 인플레이 헤지

☞ 2022년 1월 투자전략 영상 바로가기 ☜

2022년 자산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은 물론 펀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가 많다. 이럴수록 올해 투자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연간 자산시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그리고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상품 전략과 추천 라인업 등을 종합해 네 가지 키워드를 뽑았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다.

단순히 여행이나 대면 서비스 소비 등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재축적 되는 현상이 기대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기반이 넓은 일부 신흥국에 더 유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다.

G2(미국, 중국) 중심으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디지털화와 무인화, 자동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디지털물류센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과 이를 선도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을 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주식 펀드 중 G2 국가 투자 상품이나 대표 성장주 펀드 등을 눈여겨보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헤지’다.

기대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과거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리츠 등 부동산과 인프라 같은 인컴형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울퉁불퉁한 길을 뜻하는 ‘범피로드(Bumpy Road)’다.

2022년은 주식과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해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산배분형 투자가 필수적이다. 주요 운용사들의 밸런스드 펀드, EMP 펀드 등 자산배분형 펀드가 이에 해당된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류용석 부장

[2022. 1. 17 한국경제 기고문]

부동산/세무/재테크 전문가 칼럼 더보기>

Title: 롤러코스터 장세 땀 로보어드바이저로 안정적 수익을

등록일: 2021.12.23

롤러코스터 장세 땀 로보어드바이저로 안정적 수익을

🔒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던 글로벌 경제가 다시 주춤한 모양새다.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까지 겹쳐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게걸음하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도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간선거란 임기가 4년인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시행되는 선거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글로벌 물류 차질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현 여당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회복의 길도 여전히 울퉁불퉁하다. 그렇다고 내리막은 아니다. 고용이 늘고 과거 눌렸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방법이 바람직할까.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상승한 장세에서는 개별 상품의 집중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등락 국면에서는 이 같은 단품 집중 투자로는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칫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주식, 채권, 외환 및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의 시장 데이터와 거시경제 데이터를 관찰한다.

수학적 확률 모델과 리스크 관리 모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시장 급등락으로 변동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역과 자산군의 분산은 금융시장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큰 흔들림 없이 곳곳이 버텨내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가지수가 올라도 도중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정에 없던 즉흥적 매매를 하기 쉽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런 충동을 줄여주고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 때에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평탄하지 않은 굽은 길로 들어서면 감속 운전이 필수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 회복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제격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오인석 수석전문위원

[2021. 12. 13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내년 원달러 환율 1130~1230원에서 움직일 듯

등록일: 2021.12.09

내년 원달러 환율 1130~1230원에서 움직일 듯

☞ 2022년 환율 전망 동영상 바로 가기 ☜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1개월여 전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연초 1080원대에 비해서는 90원 남짓 상승했다. 내년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시기다.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글로벌 경기 회복, 위험 선호 재개, 미국보다 유럽연합(EU) 등 경제의 우위 등이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 세계 성장 모멘텀 약화, 미국 우위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이다. 필자는 전자보다 후자를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양국의 펀더멘털 차이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 펀더멘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금리다. 달러화는 미국 금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오를 것인지, 격차가 줄어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서 Fed는 확실히 내년이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다. 달러화 지수는 유로화 비중이 57.6%, 일본 엔화가 13.6%, 영국 파운드화가 11.9%를 차지한다. 일본은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유럽 중앙은행(ECB)은 아직 언급이 없다. 최근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급락했고, 엔화도 약세를 보였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이 내년 2회 혹은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기대에 비해 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이는 다시 달러에 약세 요인이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완화된 기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내년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반기로 한정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 조정,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Fed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ECB가 내년 3월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2023년에는 현재의 마이너스 수신금리를 조금씩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외환시장의 주도권은 결국 Fed가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다음으로 EU도 서서히 정책 정상화를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보다는 2023년 유로화의 반등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하반기에는 다시 Fed의 정책 기조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에서 환율은 하단 1130원과 상단 1230원, 중간값 1180원이 기준선 역할을 했다. 내년 원달러 환율도 이 범위에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

[2021. 12. 6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막연하게 느껴지는 은퇴자산 관리 TDF가 딱!

등록일: 2021.11.18

막연하게 느껴지는 은퇴자산 관리 TDF가 딱!

📺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 자녀교육, 주택마련, 은퇴생활 등 다양한 재무목표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막연해 하는 것은 은퇴생활이다. 장기간의 은퇴생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일반 연금상품 그리고 거주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전형적인 준비 방식이 있는 데 비해 퇴직연금과 일반연금상품은 투자자의 관리에 따라 은퇴 시점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퇴직연금이나 일반 연금상품의 투자대상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은퇴시기를 고려해 투자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로 연금자산관리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TDF는 1994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후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장 보편화된 상품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도입 이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이 됐다. TDF 규모는 2018년말 1조3000억원에서 올 9월 말 8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TDF가 연금자산관리 최적의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자산은 적립하는 기간에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은퇴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TDF는 은퇴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주식자산에 더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알아서 채권자산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키워준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편안하게 연금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한다. TDF의 장점이 이런 투자자 욕구와 부합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주식과 채권자산에 폭넓게 나눠 투자하므로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나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은퇴생활을 위한 연금자산관리를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마라톤과 같다. 글로벌 분산투자자 자동 리밸런싱의 장점을 더한 TDF가 편안하게 은퇴자산을 준비하고,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든직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KB자산운용 WM스타자문단 범광진 실장

[2021. 11. 1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금리 상승기엔 중위험중수익 투자로 리스크 줄여야

등록일: 2021.10.29

금리 상승기엔 중위험중수익 투자로 리스크 줄여야

☞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영상 바로가기 ☜

올해 상반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3300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는 현재 3000을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변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전력 부족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유가 급등도 원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노동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 우려 등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2022년에는 1.25~1.50%까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내년에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마무리하고 금리 정상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는 증시 격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생산 차질에 따른 병목현상,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예고된 악재로서 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응방안 역시 고민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악재의 충격은 시장의 우려보다 적을 수 있다.

미국 뉴욕연방은행의 보고서에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에 들어섰음은 자명하다.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수익 추구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위험중수익을 지향하는 상품을 잘 결합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시하는 배당주에 선별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 이익금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리츠(REITs, (REITs, 부동산투자회사)주, 5% 안팎의 수익을 추구하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공모주, 상장지수펀드(ETF) 여러 개를 담은 EMP 펀드 등이 있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자산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아닌, 투자자 본인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수익률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관점이 필요하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김영각 부장

[2021. 10. 25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50대 은퇴 꿈꾼다면 투자는 필수..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 추천

등록일: 2021.09.30

50대 은퇴 꿈꾼다면 투자는 필수..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 추천

☞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영상 바로 가기 ☜

은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주도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생각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100세 시대에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나 동료조차 찾기 힘들어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드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 속에 은퇴라는 개념을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이라 불리는 2030 세대다. 이들은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을 최

우선 목표로 두기보다 삶의 여유와 질을 향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50세 기준으로 은퇴시기를 설정하고 나름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했거나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으려고 하는 사례도 있다. 다들 저축 성향이 높고, 소비 성향은 낮으며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의 수준도 높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급여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배우자의 급여는 모두 저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높지 않으며 원금을 보전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만약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된 투자 경험은 남보다 긴 은퇴 기간 여유로움을 더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장형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 보장형 상품은 비용이 비싸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가급적 일하는 기간 동안 납입을 끝내는 것이 좋다.

연금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계속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50대가 돼서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 시점에 수령하길 원한다면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일반 비과세 연금이 적합할 수도 있다. 누구나 꿈꾸는 조기 은퇴는 특별한 준비보다는 꾸준함이 더욱 중요하다.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노원센터장 김진호

[2021. 9. 26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원달러 환율 3분기가 고점..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안정세

등록일: 2021.09.09

원달러 환율 3분기가 고점..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안정세

☞ 9월 환율전망 유튜브 동영상 바로 가기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이슈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150원을 넘어 장기 저항선인 118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Fed가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달 말 잭슨홀 미팅에 서 “경제가 진전된다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달러를 더 이상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2013년에도 논란이 됐다. 2013년 5월 당시 Fed 의장인 벤 버냉키는 의회에 참석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자산매입을 줄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자산매입 규모는 월 850억달러였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당시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으나 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3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 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시장은 오히려 위험 선호 양상을 보였고, 달러는 약세를 기록했다.

2013년과 올해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ed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재정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또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2014년 하반기부터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다. 테이퍼링 이후 Fed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는 올해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Fed의 금리인상 기대 여부가 향후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2013년과 올해 경제 상황,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정상화 수순을 비교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이 번 3분기가 정책 불확실성, 경기둔화 우려 등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각국의 정책 정상화 수순을 고려하면 미국 다음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산매입을 줄일 것이고, 국내 역시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돼 환율은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

[2021. 9. 6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1·2층 공적연금, 3층엔 연금저축.. ‘은퇴 빌딩’ 쌓아 노후 즐거라

등록일: 2021.08.19

1, 2층 공적연금, 3층엔 연금저축.. ‘은퇴 빌딩’ 쌓아 노후 즐거라

☞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마거릿 헤퍼년의 저서 <의도적 눈감기(Wilful Blindness)>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면 ‘의도적 눈감기’를 한다. 고령사회인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먼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고 눈감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엔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해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췄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소득이 중요할까. 근로소득이 현재 주 수입원이라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강제 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게 재테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상가와 꼬마빌딩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이 ‘은퇴 빌딩’의 1층이라면 퇴직연금(2층), 연금저축(3층)에 더해 주택연금(4층), 월 지급식 펀드(5층) 등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 은퇴 빌딩이 높아질수록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은퇴 빌딩을 쌓을 때 종신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세법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종신형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 상황에 따라 향후 수령 연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도 괜찮은 옵션이다. 배우자와 함께 죽을 때까지 거주하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탈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장수는 큰 복 중 하나였다. 은퇴빌딩의 건물주가 돼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자.

KB WM스타자문단 푸르덴셜생명 임주석 수석전문위원

[2021. 8. 2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IPO 大魚' 노린다면.. 안정성 높은 공모주 펀드 고려할 만

등록일: 2021.07.22

'IPO 大魚' 노린다면.. 안정성 높은 공모주 펀드 고려할 만

☞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SK바이오팜,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지난해부터 흥행을 이어온 공모주 시장이 올해도 그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상반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등 스타급 기업들이 청약 열풍을 이어갔고, 코스닥 유망 기업들도 증시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

공모주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드는 이유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덕분이다. 이달과 다음달에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내 상장될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공모주 시장 규모는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수혜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공모주 시장은 당분간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방법과 공모주 펀드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물량 중 25%가 증권사에 직접 청약하는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이 때문에 억 단위의 청약 신청을 넣더라도 겨우 몇 주만 배정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공모주 펀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배정 물량의 50%가 기관 및 공모주 펀드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공모주 펀드는 채권으로 운용하다가 유망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다. 하이일드 채권을 일정 부분

편입하는 공모주 펀드는 5% 추가 배정도 받을 수 있다. 공모주 펀드는 상품 가입 시 편입된 채권의 만기와 신용 등급,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의 매도 시점 등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배정 물량만 따져본다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모주 펀드가 일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프트클로징(신규 가입 일시 중단)을 하는 사례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지PB센터 하태원 PB

[2021. 7. 12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금리 인상 불안하다면 ETF에 적립식 투자 해볼만

등록일: 2021.07.01

금리 인상 불안하다면 ETF에 적립식 투자 해볼만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수정해 2023년 말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터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연준위원들이 논의를 시작했으며, 채권 매입 규모를 조정하기 전에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 ‘긴축 발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과감한 경기 부양책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연준이 예상했던 경로로 빠르게 회복할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3개월째 기준치 100을 상회해 주요국 경제가 코로나19 수준을 넘어서 확장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통상 경제가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회복 국면에서는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만 확장 국면에서는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된다. 주가 상승률은 회복 국면보다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와 같은 큰 폭의 주식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주식 상승률은 유지될 전망이다. 동시에 3분기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에 따른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초 대비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여행, 의류 등과 같은 콘택트 업종과 자동차, 건설, 철강 등 경기민감 업종이 상승한 반면 성장성이 큰 업종인 2차전지, 5세대(5G), 수소경제, 반도체 등의 업종이 지난해 대비 주춤하고 있다. 성장 업종은 금리 인상 시기에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을 예상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직관이 필요하다. 성장성에 확신이 들지만 하락이 불안하다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주식이 오르면 한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겠지만, 주식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해 놓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평균 매입단가 하락 효과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한방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귀찮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투자 자산과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해 드린다. 예컨대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땐 추가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 성장주 투자와 함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대비한 부동산 펀드나 리츠, KRX 금 현물도 함께 분산 투자한다면 분산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김현섭 PB

[2021. 6. 23 서울신문 기고문]

Title: 美 경제 회복 예상보다 더더.. 테이퍼링 늦어질 수도

등록일: 2021.06.03

美 경제 회복 예상보다 더더.. 테이퍼링 늦어질 수도

☞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5월 들어 외환시장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는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다. 즉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달러화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까지 상승했다. 달러화보다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지난 1분기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규모 재정지출 등에 힘입은 경기 반등과 물가 상승 기대감 이 이끌었다. 하지만 5월 초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쇼크' 수준이었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감소했으며, 주택경기과 소비심리 등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여전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며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러화 약세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국내 수급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판단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가 5월 한 달에만 10조원을 웃돌았다. 5월 초 재개된 공매도와 기술주 중심의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영향이다. 대만, 일본 증시와 대만 달러, 일본 엔화 등이 5월 들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기술주 중심의 주가 조정은 글로벌 시장금리와 연관이 있다. 이론적으로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즉 채권 약세는 주식 강세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벨류에이션이 높은 고평가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이에 대한 걱정 가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Fed가 언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다. 그 첫 단추는 자산 매입을 점차 줄이는 것(테이퍼링, tapering)이다. 최근 Fed 일부 위원이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 경제지표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연될 수 있다. 국내 증시 조정도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에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에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Fed의 테이퍼링 기대가 강화되면 환율은 하락보다 상승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

[2021. 5. 31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연금 운용, 좀 더 과감해져라.. 연금저축 펀드 고려할 만

등록일: 2021.05.27

연금 운용, 좀 더 과감해져라.. 연금저축 펀드 고려할 만

☞ 자산관리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

‘박스피’라고 불리던 코스피(KOSPI)지수가 최근 3000을 넘어섰고,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해오다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2019년 연 11.3%, 2020년에는 연 9.7%의 운용 수익률을 거뒀다. 반면 개인 연금 수익률은 각각 연 3.05%, 연 4.18%로 낮았다. 퇴직연금은 이보다도 낮은 연 2%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주식시장의 놀라운 수익률에 비하면 더욱 초라해진다.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탓이다.

개인연금은 원래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입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수익률이 낮아 대부분의 가입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은퇴자를 위한 ‘3층 연금’ 가운데 하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

연 1%대도 되지 않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과 2%대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산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야만 은퇴 자산을 늘리는 지름길이 된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고 이를 잘만관리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래전 개인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채권으로만 운용되는 연금신탁 가입자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향후 주식형 펀드를 포함해 다양한 펀드를 담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으로만 운용할 수도 있다. 시기에 따라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의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을 비교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우월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실적은 국내 증시가 더 우수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역설적으로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주식시장과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험관리에 나서보자.

‘낮은 순자산, 부족한 노후 대비’의 악순환을 끊고 ‘높은 순자산, 충분한 노후 대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개인연금으로 스타트를 끊어보면 어떨까.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골든라이프노원센터장 김진호

[2021. 5. 24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살아나는 리츠, 인프라 펀드.. 인플레이 헤지 '매력'

등록일: 2021.05.06

살아나는 리츠, 인프라 펀드.. 인플레이 헤지 '매력'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요즘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수록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이동 제한이 풀리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사람들이 쇼핑이나 출장,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업종과 기업이 그 수혜를 누릴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쇼핑물, 호텔을 포함한 부동산 업종이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수많은 업종 가운데 리츠(REITs), 부동산 섹터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진 우려 탓에 출장, 여행, 외식 등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업종과 관련한 리츠 주가도 한때 곤두박질친 뒤 올 들어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참고로 리츠는 쇼핑물, 호텔 외에 주거용, 산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다.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같은 산업용 리츠는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인프라도 리츠와 엇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을 딛고 얼마 전부터 살아나는 모습이다. 인프라 회사는 산업재로 분류되는 도로 인프라 회사는 산업재로 분류되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그리고 유틸리티에 속하는 발전, 수도, 전기, 가스 관련 설비 또는 건축물 등에 투자한다.

리츠와 인프라 자산은 통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임대료나 사용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즉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 되찾는 과정에서 물가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리츠와 인프라 자산에 일부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글로벌 리츠, 미국 리츠, 글로벌 인프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통상 20~30개 넘는 기업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 종목 집중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 그렇더라도 특정 업종에 한정돼 있어 섹터가 골고루 분산된 주식형 상품보다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시장 흐름과 색깔은 수시로 바뀐다. 올해 달라진 시장에 맞춰 자신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도 다양한 색깔과 무늬로 꾸며보면 어떨까.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오인석 수석전문위원

[2021. 5. 3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ISA 계좌 직접 관리하려면 '신탁형', 투자 초보는 '일임형'

등록일: 2021.04.15

ISA 계좌 직접 관리하려면 '신탁형', 투자 초보는 '일임형'

☞ ISA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요한 특징은 금융상품인 동시에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다. 세금도 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한다. 급전이 필요하면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된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통상 15.4%로 원천 징수한 뒤 그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층에 특히 매력적이다. < 세제 혜택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상품 관리계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사후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탁형은 계좌를 만들고 나에게 맞는 상품들을 스스로 골라 담는 형태다. 반면 일임형은 뭘 담을지를 말 그대로 금융기관 의 전문가에게 맡기는(일임하는) 방식이다. 투자 경험이 많고 직접 관리를 선호한다면 신탁형이, 생업에 바쁜 직장인이거나 투자 초보자라면 일임형이 더 적합할 것이다.

신탁형을 선택한다면 투자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편입 가능한 상품들은 예금, 환 매채(RP) 같은 안전자산부터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일반펀드, 상장주식 등까지 다양하다. 금융회사마다 전용 상품이 따로 있으며, ISA 가입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추천 상품과 투자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조하는 게 좋다

일임형을 선택한다면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하고 사후관리도 해주므로 부담이 작다. 그러나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합당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 회사의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으면 다른 곳으로 계좌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가입 기간의 연속성도 보장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곽재혁 수석전문위원

[2021. 4. 11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은퇴설계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꼼꼼히 반영해야

등록일: 2021.03.04

은퇴설계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꼼꼼히 반영해야

☞ 자산관리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인구 중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졌고 총 인구도 감소세로 진입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1년 내내 일상 활동이 지연되고 멈춰진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는 되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나는 연금제도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는 미미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 30~40년 동안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결코 만만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제도들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잘 살펴보고, 그에 맞춰 내 노후플랜의 변화 여부도 같이 점검하고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시 대상주택의 가격기준 상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은 이미 2020년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나드는 만큼 주택 1채를 소유한 은퇴생활자 중 상당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20~30%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대략 시가 12억원대의 아파트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액 산정의 주택가치 상한선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가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만 55세 이상의 주택연금 가입희망자라면 먼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본 다음, 가능하다면 가급적 빨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차 매년 공시가격은 시가에 근접하여 상승할 텐데, 올해는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이 내년에는 자칫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기간은 축소됐다. 올해부터는 추가납부 가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된다. 연금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는 이상의 혜택을 막으려는 조치다. 만약 지난 해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예상 연금수령액이 다소 모자라다면, 아쉽지만 의무가입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한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후 플랜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예비은퇴자라면 올해부터 보기 편하게 바뀌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활용하자. 퇴직연금은 노후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가입자들은 퇴직 이전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다. 그뿐만 아니라 DC(확정기여형), IRP(개인퇴직계좌)의 운용수익률이나 수수료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입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는 개편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기재된다. 또한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 및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덧붙여 예상되는 연금수령액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DC, IRP 등에 가입한 이들은 현재 관리기관의 수익과 수수료 비용을 잘 따져볼 수 있게 되고 서비스 불만족 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옮겨갈 수 있도록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연금수령액이 제시될 경우, 막상 어렵게 느껴졌던 은퇴 설계나 연금플랜을 직접 짜 보는 것도 보다 손쉬워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 때문에 기존 주택을 다운사이징하고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는 은퇴생활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주택연금전용계좌제도가 신설되고 압류방지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 이슈로 2015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전년도 연금 소액 인상률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연금공단에서 고시한 2021년도 지급액 인상률은 0.5%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객재혁 수석전문위원

Title: 3년 넘은 ISA, 연금계좌로 옮겨볼까

등록일: 2021.01.28

3년 넘은 ISA, 연금계좌로 옮겨볼까

ISA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 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직전연도에 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의무 보유 만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해 야 했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연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ISA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플러스 부분만 과세한다는 '통산' 개념을 기억해야 한다. 수익금의 200만원 까지 비과세 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 이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에서 미납분에 대한 이월적립 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미납분을 소급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ISA 계좌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금계좌 이전 전액의 10%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000만원까지는 연금계좌 이전을 고려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해지 이 후 재 가입한다면 새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ISA에서 꾸준히 자금을 운용하면서 9.9% 분리과 세 혜택을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스타PB센터 임은순 PB

[2021. 1. 17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바이든 시대 친환경, 기술주 투자 '맑음'

등록일: 2020.12.17

바이든 시대 친환경, 기술주 투자 '맑음'

☞ [굿바이!2020 & 헬로!2021] 자산 관리 온라인 세미나 바로가기 ☜

미국 대선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투자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감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통한 성장을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

바이든은 임기 4년 동안 클린에너지 47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친환경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 관련주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대외 관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관세 인상 등 무역마찰 격화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신흥국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공화당이 미국 상원의 다수당이 된 것은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의 반대로 경기 부양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와 반독점 규제 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져 대형 기술주는 실적에 따라 우상향 기조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견제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부양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통화 완화를 통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이사회(연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하고, 평균 물가목표제를 시행하는 연준의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저금리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마찰 완화는 달러 강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이후 외환 당국의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달러 약세흐름이 전망된다.

미국 대선이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 속도, 노딜 브렉시트 등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를 이어 가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김현섭 PB

[2020. 11. 26 서울신문 기고문]

Title: 저금리 시대 은퇴자는 신종자본증권 고려할 만

등록일: 2020.11.19

저금리 시대 은퇴자는 신종자본증권 고려할 만

☞ 유튜브 여의도5번 출구 바로가기 ☜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0.9% 수준으로 떨어졌다. 1억원을 맡겨놔도 세전으로 90만원 을 손에 쥐게 된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은퇴생활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금 금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식 등의 투자상품은 변동성 때문에 망설여진다.

저금리 정기예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없을까. 이런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합하는 상품을 골라보자면 신종자본증권이 있 다. 신종자 본증권은 은행이나 금융지주 등 주로 금융회사들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변형 채권(하이브리드 본 드)이다. 채권처럼 일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장기인 것이 특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정해진 금리로 3개월마다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퇴 이후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발행된 한 금융지주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는 연 3.12% 수준이었다. 가입 할 때 1% 정도의 보수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2.8~2.9%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1억원어치 투자하면 약 300 30 0만원(세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이 매우 중요 하다 . 발행회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채권보다 더 크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하태원PB

[2020. 11. 9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요즘 핫한 '따상' 공모주 투자?... 코스닥벤처펀드 활용해볼만

등록일: 2020.10.15

요즘 핫한 '따상' 공모주 투자?... 코스닥벤처펀드 활용해볼만

동영상 설명 바로가기

올해로 10년차 직장인이 된 김 모씨(35)의 요즘 관심사항은 공모주다. 아직까지 싱글인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퇴직연금 등을 제외하고 종잣돈 1억원을 모았다. 김씨는 “결혼도 고민해야 하고 노후도 불안해 어렵게 모은 종잣돈(1억원)을 어떻게든 잘 지키면서 불려보고 싶다”며 재테크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제로금리로 예금 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덜컥 펀드나 주식 등을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높다는 것도 김씨의 고민을 가중시킨다. 특히 최근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주식 투자에 나선 가운데 이익을 봤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김씨는 고민 끝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가지고 있던 자금을 모두 증거금으로 맡겼는데, 돌아온 건 고작 5주였다. 물론 상장 후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걸 보며 기분은 좋았지만 주식 수가 적다 보니 수익률이 초라하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좀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위해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를 찾은 김씨를 위해 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스타PB센터 PB가 나섰다.

- 최근 공모주 인기 원인은.

지난 7월 SK바이오팜이 쏘아 올린 ‘화살’이 카카오 게임즈로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심리 위축 등을 우려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기대감과 유망기업 청약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향후 상장되는 기업들의 카카오페이지, 교촌에 프랜차이즈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익숙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많다.

- 공모주 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

공모주에 관심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청약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공모주는 신청 수량을 경쟁률로 나눈 만큼 배정받는다. 예컨대 경쟁률이 100대1일 경우 최소 100주를 주문해야 1주를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크면 클수록 배정받는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 시에도 ‘부모님 찬스’ 외에 마이너 스톡장 등 신용대출을 모두 끌어모았던 투자자가 많았다. 다만 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다. 증권사별 우대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사마다 등급별로 청약 한도와 우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청약일 직전 자산 평균 잔액 혹은 청약일 전월 말일 잔액이 특정 금액 이상인 경우처럼 거래 금액이 기준일 때가 있다. 그러나 청약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나 장기연금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주는 우대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자. 온라인 매체로 청약 하면 우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 간접투자 방식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IPO 공모주는 우리사주 조합원과 일반청약자에게 각각 20%를 배정하고, 60%를 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기관 가운데 코스닥 벤처 펀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져가고, 하이일드 펀드와 일반 공모주 펀드 순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펀드 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모주 펀드는 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 가운데 극히 제한적인 분량을 실제 공모주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채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때가 많다. 반면에 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이 있는 대신,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므로 변동성이 높다. 채권 중 하이일드 채권에 45%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 공모주 투자 시 유의사항은.

청약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 이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무작정 상한가로 따라서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피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가 항상 수익을 내는 황금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상장된 첫날에 시초가(상장 후 시작 가격)는 높게 결정됐으나 공모주를 배정받았던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에 주식을 매도해 공모가보다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공모주 펀드가 최근과 같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다. 공모주 흥행 상황이 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임은순PB

[2020. 9. 18 매일경제 기고문]



Title: 치솟은 금값..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등록일: 2020.09.03

“치솟은 금값..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개인들 사이에 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투자 문의도 많아졌다. 가장 잦은 질문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이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스럽기 때문인 듯하다. 연초 온스당 1500달러대이던 국제 금 현물가격이 2000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니 30%가량 상승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투자해도 큰 무리 없어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금 투자에 따르는 기회비용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수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접하는 명목금리가 연 1%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연 1%라면 실질금리는 제로다.

금은 녹슬지 않는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이자도 배당도 없는 차가운 금속의 한 부류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은 채권, 주식과 달리 이자나 배당 같은 인컴(Income)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투자할 때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달러화 약세도 금 가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상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자재 전반적으로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달러화 약세라는 순풍 덕분에 원자재의 일종인 금도 순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하나인 금을 주요국 중앙은행이 선호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 한국, 러시아, 중동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이 수천억달러가 넘는데 대부분은 달러화로 보유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고 달러를 엄청나게 풀면서 달러화 가치에 의구심이 생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액 일부를 금으로 대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실제 이를 실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금에 유리한 환경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아주 빠르게 회복돼 실질금리가 오르거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금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한 대형 기술주들의 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올 경우 손절보다는 매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저금리 장기화는 대형 기술주에 분명 호재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 가운데 골드바 신탁이 인기다. 투자자가 원하면 금 현물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 선물로 운용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금 펀드도 있지만 선물 만기 연장 시 비용이 생겨 금 현물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 금광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의 일종인 금 펀드도 있는데 금 현물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오인석 수석전문위원

[2020. 8. 23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브라질 올 역성장, 中은 선방 전망.. 코로나 충격 엇갈려

등록일: 2020.08.20

“브라질 올 역성장, 中은 선방 전망.. 코로나 충격 엇갈려”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 바로가기 

올해 상반기 달러의 힘은 여전히 강했다. 지난 3월부터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금융시스템은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최근 30년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바로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채권시장 개입이 이어졌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됐다. 하반기 투자자들의 관심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금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쏠려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고,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라 국가별 경기 회복세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 및 재정정책 여력이 없는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맞물려 올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추가 경기부양책의 추진 여력에 따라 상황이 바뀔 전망이다. 20세기 이후 극복되지 않은 전염병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시점의 문제로 보는 게 옳다. 전문가들은 백신 출시시점을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4월 이후 급반등에 따른 가격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점진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기대에 비해 부진한 경제지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이 부담 요인이다. 단기에 조정받을 부담도 적지 않다. 4월 이후 전세계 증시를 이끌던 대형 기술주(성장주)의 가격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고 있다.

물론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한 대형 기술주들의 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올 경우 손절보다는 매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저금리 장기화는 대형 기술주에 분명 호재다.

전통산업 중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생산기술, 친환경자동차 섹터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점쳐진다. 현재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진영의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간 소외됐던 유럽 증시도 수혜가 기대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객재혁 수석전문위원

[2020. 8. 17 한국경제 기고문]

Title: 현금이 왕? 잠 못 드는 현금부자

등록일: 2020.07.02

“현금이 왕? 잠 못 드는 현금부자”

서양에서 왕이나 군주들의 대관식 때 사용하는 왕관은 2kg이 넘었다고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는 1953년 대관식을 회상하며 ‘왕관이 너무 무거워 고개 숙이면 목이 부러질 것 같았다’고 하기도 했다. 왕관 자체의 무게도 무게지만 정치적 판단의 고충 등 일반인들은 모르는 심적 무게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연0.5%.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도 1% 금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저금리 현상이 심화될 수록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시장 분위기 속에서 성급한 투자 결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책(下策)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면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면 때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붐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다만 동전 던지기과 같은 무모함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잘 아는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전제가 된다면, 다르다. 국내외 다양한 기업(주식)에 대한 투자는 스마트한 베팅일 수 있다.

우량 국공채를 기반으로 해외기술주·국내성장주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연 0%대 정기예금의 대안으로 국채를, 장기 수익기회를 목적으로 국내외 성장주식(소프트웨어, 전기차·2차전지, 바이오업종 등)을 추천한다. 만약 1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연 1.3%의 수익(매년 두 번씩 지급되는 약정이자를 포함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국채는 만기 보유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현금 필요 시 원활한 중도 매도를 통한 현금확보가 가능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산투자 전략은 금과옥조다. 투자지역, 투자자산, 투자기간을 다변화하면 예기치 못한 가격 하락을 인내할 수 있다. 장기간 위험 감내에 대한 보상과 그 부산물로 배움과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말이 있다. 깊은 고뇌보다는 빠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현기성 차장

[2020. 6. 22 한국경제 기고문]